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

—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 —



일 시 _ 2021. 8. 20(금) 14:00~17:00

방 법 _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주 최 _ 교육부

주 관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인 사 말

근대교육이 탄생하자, 국가교육과정이 탄생하고,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간혹 대안교육의 원형인 듯 회자되는 서당교육은 근대교육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근대학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식 교육의 때를 오랫동안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해방이후에는 미국식 교육을 들여오는 일이 교육개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교교육은 일제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의 어색한 동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교육은 점점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압축적인 근대화의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PISA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도 무시 못 할 학교교육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성적, 입시지상주의가 학교교육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80년대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대안교육이란 말이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때 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교육은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이라는 양자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분명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은 보다 공식적인 교육의 장이 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학교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기능에 그치던 온라인 교육이나 사이버 상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의 경계에 놓여 있지만 무서운 기세로 다가서고 있는 메타버스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의 경계는 더 모호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경계는 이미 허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대안교육의 미래인지 모릅니다.

대안적인 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적 실험일 것입니다. 그 실험의 장소는 학교일 수도 있고, 학교 밖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사이버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대안교육이 갈 길은 오로지 경계선을 넘어선 끝없는 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포럼이 새로운 실험을 구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상상의 창을 열어주실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 선생님, 거꾸로 캠퍼스 이성원 대표님,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주주자 장학사님, 여승욱 선생님, 김민 교수님, 김종훈 교수님, 전정일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 마련을 위해 힘써 주신 교육부 그리고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애정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 현 철

목 차

주제발표 1.

- 대안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 3
(별무리학교 교장 이상 찬)

토론문.

-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실행 및 성과 토론문 25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주 주 자)
-

주제발표 2.

- 배움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43
(거꾸로캠퍼스 대표 이 성 원)

토론문.

- 성장하는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56
(대구해울중·고등학교 교사 여 승 욱)
-

주제발표 3.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장과정 67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 건 희)

토론문.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정 토론문 92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 민)

2021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

-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

■ 개요

- 주 제 :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
- 주최/주관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참석대상 : 대안교육 관련 학교장, 교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계 인사 등
- 일시/장소 : 21. 08. 20.(금) 14:00~17:00/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 개 회 식 사회: 박하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10~14:10	10' 개회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환영사 교육부
14:10~15:10 [60']	▶ 주제발표 1 발표자 별무리학교 이상찬 교장 “대안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 토론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주주자 장학사
	▶ 토론 : 문화로서의 대안교육
	▶ 주제발표 2 발표자 거꾸로캠퍼스 이성원 대표 “배움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토론자 대구해울중·고등학교 여승욱 교사
	▶ 토론 : 성장하는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15:10~15:20	10' ▶ 휴 식
15:20~16:40 [80']	▶ 주제발표 3 발표자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장과정” 토론자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김민 교수
	▶ 토론 :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과 대안교육과의 협력
	좌장: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 종합 토론 “미래 대안교육을 향한 길은?” 김종훈(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정일(과천맑은샘학교 교장) 김민(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여승욱(대구해울중·고등학교 교사), 이상찬(별무리학교 교장), 이성원(거꾸로캠퍼스 대표),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주주자(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1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00	▶ 폐 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주제발표 1.

대안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

이 상 찬 (별무리학교 교장)

토론문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실행 및 성과 토론문

주 주 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대안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

별무리학교 교장 이상찬

I. 들어가는 글

교육부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10대 정책 중 첫 번째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마련’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시이다(교육부, 2020). 특히, 2025년 전면 시행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줄 세우기식 경쟁 체제의 학교 체질 개선과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교육부, 2018).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미래교육의 담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등의 이유로 제도권 학교들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것 같다.

2016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B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지 6년차다.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배운 만큼 성장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힘겹게 고교학점제를 수행하였다. 이 글은 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5년 4개월 동안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탐구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점제의 적용과 그것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행을 돕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 데 학점제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점제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은 치밀한 진로지도의 필요, 학생에 대한 면밀한 이해, 교사의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 학습의 장의 확대, 집단지성의 구체화, 원격지원 프로그램, 실천 중심의 학습이라는 특성을 보였다. 이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실질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진로와 진학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II.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

1. 맞춤형 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

2016년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략 2022년 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성적 중심에서 소질과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분야의 교과중점학교 확대,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교육부, 2016). 그리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25년 까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육 상황은 이런 계획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되고 학교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제도권의 안일한 교육 방향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내용과 교과 과정을 통해 구조적인 전환을 꿈꿨던 대다수의 대안 학교나 혁신학교들도 결국 ‘대학 진학’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입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대학에 귀속된 학교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허수아비 같은 부속적 존재가 되어 갈 것이다. 이는 장차 학문과 삶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학생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을 진행한 학교들이 궁극으로 바라던 대학에게도 좋지 않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고 싶은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교육 과정을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찾는 학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생활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학점제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점제이다. 학점제는 교과별 이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교육 선택권의 확충과 저마다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방향성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학점제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 위계형, 선택형, 혼합형, 개방형의 네 가지가 있다. 위계형은 도구교과에 효과

적이고, 선택형은 내용교과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클러스터형, 캠퍼스형 등이 현장에서 논의 및 적용되고 있다.

3. 어드바이저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성이다. 그리고 그 자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어드바이저는 학급 담임으로서 학습, 진로, 학교생활 등에 대한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4. 학습 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맞춤형교육과정은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학습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그룹이나 학교 외부 교과 멘토를 동원하여 개설되는 학습 내용이 있다. 결국, 다양한 학습 내용과 부대적인 강의실 사용,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 멘토들의 참여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확산적인 교과, 다양한 교과 멘토, 제한적인 강의실 사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5. 교과 멘토링(학습 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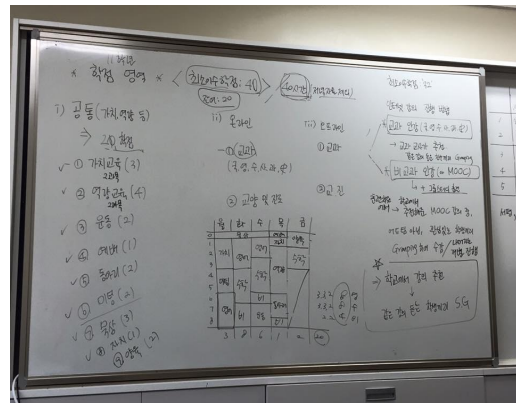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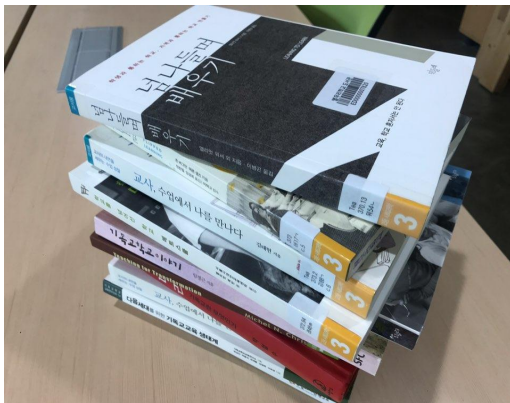
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은 교사, 학생, 외부 멘토에 의해서 개설되고 운영된다. 그 과정에서 교과 전문성이나 학문적 이해를 구비한 수업 진행자는 내용면에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중심, 혹은 그룹 중심으로 개설된 수업은 계획과 학습 과정, 결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멘토링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준비성, 수업 진행 과정, 최종 평가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동의가 필요하다.

Ⅲ. 학점제의 계획 및 실천

2015년 2년 동안 준비한 역량중심교육과정을 토대로 B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던 첫 학기를 잊을 수가 없다. 교육과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교사 연수 과정을 거치며 진행하였지만 곳곳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 책상 위에 엎어져 자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나름 포부를 안고 온 고등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매우 컸다. 다들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업무를 마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5학년도 2학기에 시작한 자발적 모임은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task force team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해 겨울 방학 전체를 향후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기존의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고, 2016년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가 강조하던 가치, 역량, 세계관 교육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논의하던 중 교육과정의 내용이 매우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분석을 했다. 가치교육과정의 경우 강조할 영역을 먼저 정하고 담당자 그룹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여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중핵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 B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문제는 교과교육과정이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사실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이 전문 교과를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 교육과정이었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교과교육과정을 통해 좌절감과 엄청난 개인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몇 번의 논의 끝에 기존의 우리의 교과교육과정이 3S(same space, same subject, same speed)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사가 나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통해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었다.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학습 내용을 포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3S에서 3A(any space, any subject, any speed)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교육공간과 교육을 위한 교재와 학습 내용에 대한 개인차를 초월하여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 사례를 찾을 필요를 느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선택한 교과 및 수업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교육과정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 집단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버린 결론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다. 심지어 교과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만들거나 주도하는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점제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된다.



1. 개요

학교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철학적 가치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필수학점)과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는 과정(선택학점)을 학생들이 유연하게 이수하게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방침

- 학교는 **쿼터(4학기)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다양한 학습 설계를 장려하고 쿼터 종료 후 **프로젝트 학습 주간**을 통해 학습의 보충, 심화, 현장(학교 밖)과의 통합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 학생은 **필수학점과 선택학점, 졸업 요건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정해진 규정과 시기에 따라 이수한다.
- 한 쿼터당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필수 6학점, 선택 17학점**이며, 선택학점은 20학점 이상 신청할 경우 어드바이저와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다.
- 필수학점은 졸업을 위해 매 쿼터별 6학점씩 100% 이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사가 인정하는 대체 과제 및 활동으로 과목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선택학점은 학교가 개설해 놓은 다양한 교과 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며 학습 성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멘토와 어드바이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학생은 쿼터별로 학습결과에 대한 종합 발표회 및 멘토 평가, 어드바이저 평가,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이수 여부를 평가받는다.

3. 학점제의 전제

가. 가치와 역량의 이해

- 이 시대를 조망할 줄 아는 세계관 습득
- 삶의 주요 가치에 대한 공감(공동체, 제자도, 소명, 살림)
-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는 양육 수업 시간, 예배, 상담을 통한 교육

나. 자기 이해

- 학생종합검사(10학년, 11학년 1쿼터)- 다중지능검사, 홀랜드검사(진로탐색, 전공탐색), 자기주도학습조절검사, 칭찬사전, 가치동사, 역량동사
- 통합 상담 후 자기이해보고서 작성(10학년, 11학년 1쿼터)- 핵심 Keyword
- 개인(공동) 프로젝트 선정(수시)
- 자기이해 자료 포트폴리오 축적(수시)

다. 다양한 진로 경험

- 다양한 솔루션 프로젝트 참여
- 다양한 유턴십 참가
- 진로동아리 활동(수시)
- 진로 포트폴리오 축적(수시)
- 교내외 각종 대회
- 진로 및 인문독서활동(수시)
- 봉사활동(수시)

라. 경험 정리

- 포트폴리오 정리(3W)
- R&E(소논문, 개인/공동체 프로젝트, 자서전)→ 전국 R&E 대회 출품(수시)

마. 삶으로 배우기

- 후배들의 위한 조언(12학년 4쿼터부터)
- 롤 모델과의 동행
- 교육 공동체로 활동

4. 학점제의 지원을 위한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점제에서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업이 소규모로 편성되고, 강의실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배울 교과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건물에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시간표, 사방에 흩어져 가르치는 교사들, 사용 빈도가 높은 강의실 사용 여부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B'학교에서는 정보기술 선생님 두 분이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그들만의 학습지원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있다. 이것은 파편화되고, 소형화 되는 학습 방식 및 학교 문화를 하나로 묶고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자와 교사들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능에서부터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학생, 멘토, 어드바이저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



학습자인 학생과 교과 전문성을 갖춘 교과 멘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진로, 생활, 자기 관리 일체를 관리하는 어드바이저들은 역할과 기능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학생의 소재 파악에서부터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시간표부터 수강신청 양식, 학습계획서, 전체 개설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맞춤형 교육과정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 제공

(1) 학습계획서

안내
설계
결과
시스템

학습계획서 설계

시간표 선택

102

시간표 강의실

교시 월 화 수 목

시간표를 먼저 선택하세요.
재출하지 않은 학습계획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학습계획서 작성

작성자 이상진 temist@bmrchool.org 멘토

교과 교과영역을 정하고 강좌명 특수문자 _/()을 사용하지 마세요.

개설배경

가치분야

역량분야

출발목표

1주차

2주차

학습내용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수강대상 전학년 수준 하 신청확검

교재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본인 0%

멘토 10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초대된 모든 교과 멘토, 외부 멘토, 학생들은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춘 멘토의 경우 자유롭게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교과 멘토나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을 거쳐야 개설이 가능하다. 위계가 분명한 도구교과의 경우 사전에 학습된 지식의 수준이 학생이 개설하려고하는 수업의 난이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지, 학생이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정확히 평가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탐구교과 혹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교과의 경우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학습 내용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업은 개설할 수 없도록 철저한 멘토링을 거쳐야 한다.

(2) 수강신청

안내 설계 결과 시스템			
수강 신청			
멘토를 선택하세요.			
멘토	이상찬		
수강신청	강좌명	시간	학습계획서
신청	성경적 안권과 문화_이상찬/이상찬(회의실)	수 10수9	보기
신청	BGA_최하은/이상찬(없음)	목5목6	보기
신청	미생물학_이상찬/이상찬(별동천 카페)	목5목6	보기
신청	바이올린 (스즈키 3권)_윤지선/이상찬(음악실1)	월5월6	보기
신청	이후길프로젝트-아동...우진/이상찬(없음)	월5월6	보기
신청	수시음악_주연철/이상찬(없음)	목2목3목4목5목6수2수3수4수5수6수7수8월2월3월4월5월6월2월3월4월5월6	보기
신청	교육독서및연구_안지인/이상찬(음악실1)	수3	보기
신청	이후길 중고등 전체모임_박민아/이상찬(음악실2)	수2	보기
신청	교육독서및연구_안지인/이상찬(세미나1)	월6	보기
신청	축구 training_이희표/이상찬(없음)	월10월9	보기

수강신청은 교과 멘토가 개설한 수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학생들이 개설한 수업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수강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강의 제목, 내용, 학습계획서, 평가 방법)는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최종 학습계획서

수업이 개설되었다고 모든 수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선택해 주어야 수업이 개설된다. 교과 멘토들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고,

학습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교과 멘토는 학습계획서를 확정 짓기 전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학생들은 그 설명을 잘 듣고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마음속에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 개설 수업이외의 학생 개설이나 외부 멘토를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은 교과 내용의 중복 여부나 누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학습 계획을 짜야한다.

안내
설계
결과
시스템

학습계획서 결과

아래에서 선택하세요.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작성자	교사	이정현	concerto99@bmrnschool.org	
멘토	교사	이정현	concerto99@bmrnschool.org	
교과/과목	학문과 통계	강좌명	학문과 통계(상)_이정현/이정현(세미나1)	
개설배경	수학을 깊이있게 배움으로써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			
		역량분야	사고력	
총괄목표	학문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1주차	경우의 수와 순열			
2주차	조합과 분할			
3주차	이항정리			
4주차	중간고사(Mid-Term Exam)			
5주차	확률의 뜻과 활용			
6주차	조건부확률			
7주차	독립시행의 확률			
8주차	기말고사(Final Exam)			
수강대상	전학년	수준	중	신청학점 4

수강명단

개설시간	목5목6목3목4	강의실	세미나1
번호	학번	이름	이메일
1	11학년	전영재	161036@bmrnschool.org
2	11학년	최하람	161029@bmrnschool.org
3	11학년	류신	161011@bmrnschool.org
모든 수강생에게 이메일 보내기			

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보를 공유

(1) 강의실 사용 여부

안내
설계
결과
시스템

학습계획서 설계

시간표 선택

강의실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강의실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없음
101
102
101/102
103
104
103/104
201
202
201/202
203
204
203/204
205
206
205/206
207
208
207/208
세미나1
세미나2

시간표	강의실		201/202
교시	월	화	수
2교시	☐	☐	☐
3교시	PET 1_정미현/정미현 (201/202)	정복통통통피피피도 1_조윤길/조윤길 (201/2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문_김형규/김형규 (201/202)
4교시	PET 1_정미현/정미현 (201/202)	정복통통통피피피도 1_조윤길/조윤길 (201/2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문_김형규/김형규 (201/202)
5교시	한국사1(A)_박은주/박은주(201/202)	☐	한국사1(B)_박은주/박은주(201/202)
6교시	한국사1(A)_박은주/박은주(201/202)	☐	한국사1(B)_박은주/박은주(201/202)
7교시	☐	학술적 글쓰기 2_박한배/박한배(201/202)	일본어_윤지훈/윤지훈 (201/202)
8교시	☐	학술적 글쓰기 2_박한배/박한배(201/202)	일본어_윤지훈/윤지훈 (201/202)
9교시	☐	수학의 신_서주영/서주영(201/202)	☐
10교시	☐	수학의 신_서주영/서주영(201/202)	☐
저녁활동1교시	☐	☐	☐

사용하고 싶은 강의실을 클릭하면 무슨 요일의 어떤 시간에 강의가 있는지 나오며, 빈 시간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

(2) 학생 시간표

학생 시간표는 그 시간표를 사용하는 본인은 물론 이 시스템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을 빠르게 찾고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학생의 시간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시간표는 중요하다. 어드바이징을 담당한 교사는 대상 학생들의 시간표를 보고 학습량의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다.

안내	설계	결과	시스템			
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07:00-07:30	아침활동	아침활동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30-09:00	아침독서	저크인	아침독서	예배	아침독서	아침독서
09:00-09:35	1교시	목상	목상	예배	목상	목상
09:45-10:30	2교시	독서	어드미팅	공강	자율	자향
10:35-11:20	3교시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101/102)	공강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101/102)	자율	자향
11:25-12:10	4교시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101/1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문_김광규/김광규 (207/208)_이민영/김광규 (207/208)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101/1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문_김광규/김광규 (207/208)_이민영/김광규 (207/208)	저크아웃
12:10-13:1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10-13:55	5교시	사회A_손국성/손국성 (203/204)	Book Reading Mentoring A_정미현/정미현 (세미나4)	세계문학으로 생각하기_황선미/황선미(세미나3)	ESC_오하선 이민영/김아민 (세미나3)_이민영/김아민 (윤율)	
14:00-14:45	6교시	사회A_손국성/손국성 (203/204)	공강_오하선/정미현(윤율)	세계문학으로 생각하기_황선미/황선미(세미나3)	영단어 외우기	
14:50-15:35	7교시	기독교세계관 10_강신만/강신만 (103/104)	학술학 글쓰기_김한나/김한나(207/208)		자치	
15:40-16:25	8교시	기독교세계관 10_강신만/강신만 (103/104)	학술학 글쓰기_김한나/김한나(207/208)		자치	
16:30-17:15	9교시	자전거 라이딩_손국성/손국성(윤율)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_김향규/김성수 (103/104)	수학질문	동아리	
17:20-18:05	10교시	자전거 라이딩_손국성/손국성(윤율)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_김향규/김성수 (103/104)	공강	동아리	
18:05-18:55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1:00	저녁활동		테마로 배우는 경제학_이지영(103/104)	텍스트분석과 비판사고C_김성수/김성수 (205/206)		
			테마로 배우는 경제학_이지영(103/104)	텍스트분석과 비판사고C_김성수/김성수 (205/206)		

라. 맞춤형 교육과정 진행을 지원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학습지원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역할은 지대하다. 강의실, 학사일정, 게시판, 300여 개가 넘는 개설 교과에 대한 정보 등 전체적인 안내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다.

227	미적분(하)_김다문/정해은(없음)	정해은	개인	중상	3	수4월10월9월11월12	미적2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개설된 수업	보
228	미적분1 (하)최하람_최하람/정해은(없음)	정해은	전학년	중상	2	목3목4	미적분1의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	보
229	미적분1 복습_고재현/정해은(없음)	정해은	전학년	상	2	목5목6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을 복습하기 위한	보
230	미적분1, 확률과 통계_안다운/정해은(없음)	정해은	개인	중상	14	목2목3목4목5목6수2수3수4월2월3월4월2회3회4	미적분1, 확률과 통계 기출문제를 풀어 수능을 대비.	보
231	미적분II_오준용/정해은()	정해은	개인	중상	8	목2목3목4수2수3수4수5수6	수능 공부	보
232	미적분 I (문제풀이)_정해은/정해은(205/206)	정해은	전학년	상	2	목3목4	심화된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적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3	미적분 I (상)_박지훈/정해은(없음)	정해은	개인	중	2	수3수4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4	미적분 I (상)_박지훈/정해은_박지훈/정해은(없음)	정해은	전학년	하	2	월7월8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5	미적분 I (상)_이만우/정해은_이만우/정해은(없음)	정해은	개인	상	4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6	미적분 I (상)_정해은/정해은(205/206)	정해은	전학년	중상	2	화5화6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7	미적분 I (하)_정해은/정해은(205/206)	정해은	전학년	중상	4	수3수4월5월6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1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8	미적분II(상)_정해은/정해은(205/206)	정해은	전학년	중상	2	화3화4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2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39	미적분II(하)_정해은/정해은(205/206)	정해은	전학년	중상	2	수7수8	수준별 수학 학습을 통하여 미분 2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보
240	미적분II_권승범/정해은()	정해은	개인	상	5	목4목5목6수5수6	공부	보
241	수능 수학_임서연/정해은(없음)	정해은	12학년	중상	6	목6수3월3월4월3화4	수능 수학을 대비하기 위해	보

5. 학점제와 평가

학점제에서 수업 개설의 주체는 교사, 학생, 외부 멘토이다. 결국 평가도 이 세 영역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지의 여부가 학습 과정 전체를 좌우한다. 교과전문성이 확보된 교사 개설 수업의 경우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 개설 수업의 경우 매우 치밀한 학습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바로 교과 멘토의 안내가 절실하다.

가. 교사 개설 수업의 평가

교사가 개설한 수업의 경우 교과 멘토의 평가가 대부분 100%이다. 그 비중은 각기 교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간평가, 기말평가, 성실도, 태도를 평가 요소에 포함시켰다.

평가계획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본인	0%	
	멘토	10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성실도 20%, 학습태도 2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매우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 79-60 F - 학점 이수 하지 못함 : 59점 이하		

[그림] 수학Ⅱ(상)A-교사개설 수업의 예

나. 학생 개설 수업의 평가

학생이 개설한 수업의 평가는 수업의 개설 전에 교과 멘토와 함께 논의되고, 쿼터 말 평가 시간에 멘토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은 수업에 참가한 학생의 본인 평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과 멘토의 평가 내용에 의존한다.

평가계획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본인	10%	
	멘토	90%	중간고사: 20% - 기말고사: 20%, 수시평가: 20% , 출석: 20% - 태도: 1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7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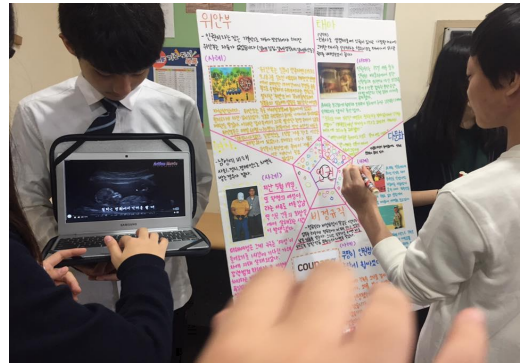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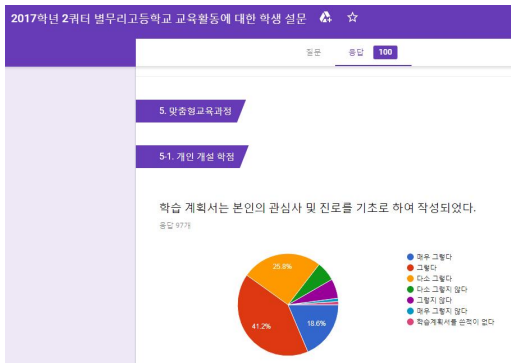
다. 외부 멘토 개설 수업의 평가

학교 밖의 전문가를 통한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외부 멘토를 통하여 수업을 개설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학교는 외부 멘토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강의 조건을 안내하며, 최종적으로 멘토의 평가가 학생의 어드바이저를 통해 학습 상황이 교과세부 특별 활동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교재			
정지오 강민성 PD님			
평가계획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본인	20%	자신의 성실도
	멘토	80%	수업 결과물, 태도점수, 숙제 성실도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매우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79-60, F - 학점 이수 하지 못함: 59점 이하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과 개설

매 쿼터마다 300 과목이 넘는 다양한 수업 내용이 개설되어 운영된다. 2016년 3, 4쿼터와 2017년 2쿼터의 교과수업 개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관심사와 진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대답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치면 각 각 73.3%, 61.5%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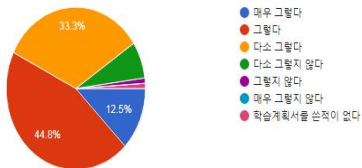


나.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는 학습실행 단계

계획된 학습이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진행되었다는 반응은 2016년, 2017년 각 각 86.7%, 90.6%로 응답하였다.

학습실행 단계에서 계획된 학습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편이었다.

응답 9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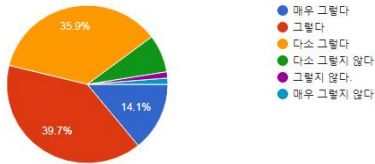
[그림] 2017년 2쿼터 학습 계획 수행 설문

3. 학생 중심 Project Based Learning과 같은 학생 참여적 학습 형태가 많아졌다.

일률적인 강의식이나 인터넷을 들으며 진행하는 원격 학습 보다는 교사와 학생, 혹은 외부 멘토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폭넓게 활용되었다. 2017

년 1쿼터에 개설된 전체 270과목 중 48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17년 2쿼터엔 311과목 중 79개 과목이 개설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문제해결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응답 78개



[그림] 2017년 2쿼터 프로젝트 학습 설문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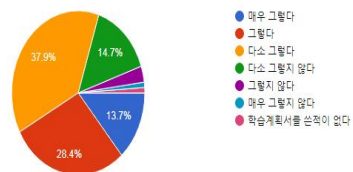
4. 학습을 시행하는 동안 효과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교사가 개설한 수업이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설한 수업이건 시작하는 내용과 학습 과정, 그리고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의 교과 멘토와의 원활한 검토와 확인은 학습의 질을 결정한다. 95명의 응답자 중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학생은 80%에 달했다.



학습실행 단계에서 교과 멘토로부터 학습 진행 정도와 성취도에 대해 원활하게 검토를 받았다.

응답 95개



5. 학점제와 진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울 교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소위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학생들에게 넘기는 결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롭게 배울 교과목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사에게 '어떤 교과를 먼저 배워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하

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과정을 안내하며 B학교가 배운 것은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에게 선택하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적성을 알아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진로 교육과정을 함께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점제를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진로 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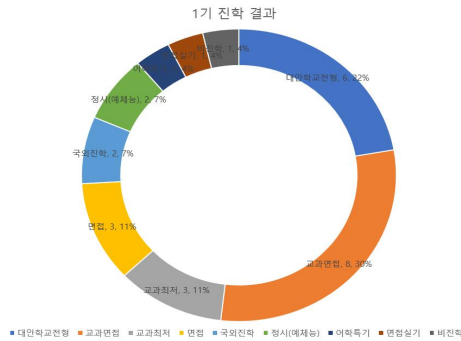
2020년 현재 3기까지 1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B학교의 진로는 8명(87.6%)을 제외한 97명(92.3%)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중 3명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관에서 농사 공부를 2년 동안 하였다.

(1) 전형별 진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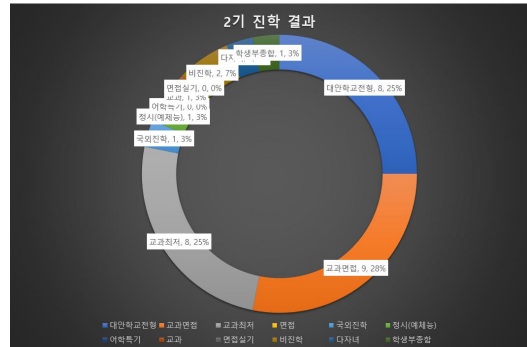
전형별 진학 결과는 대안학교 전형이 가장 많았고,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검정고시 점수를 비교대신으로 환산해 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능 최저 점수를 기대하는 전형을 포함하면 대안학교 전형을 능가한다.

전형 종류	1기	2기	3기	계
대안학교전형	6	8	13	27
교과면접	8	9	4	21
교과최저	3	8	8	19
면접	3	0	1	4
국외진학	2	1	1	4
정시(예체능)	2	1	1	4
어학특기	1	0	0	1
교과	0	1	9	10
면접실기	1	0	0	1
비진학	1	2	4	7
다자녀	0	1	0	1
학생부종합	0	1	4	5
논술	0	0	1	1
합	27	32	46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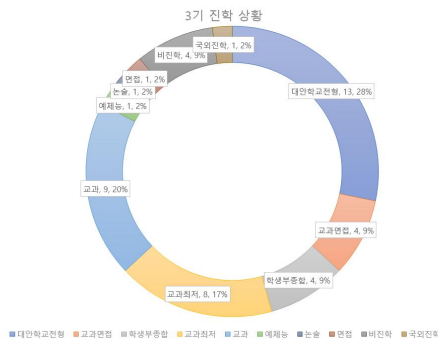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검정고시’이며 지역 거점 대학의 장점을 감안한다면 내신을 검정고시로 확보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 새롭게 증가세를 보이는 전형은 일반학교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학교에서도 서서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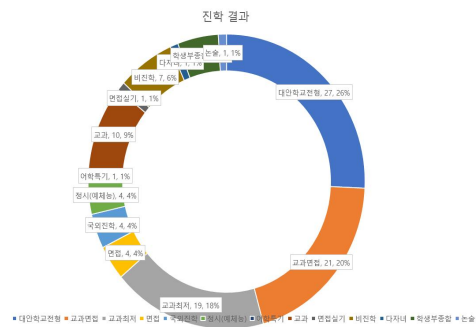
[그림] 1기 졸업생의 전형별 진학 결과



[그림] 2기 졸업생들의 전형별 진학 결과



[그림] 3기 졸업생들의 전형별 진학 결과



[그림] 전체 졸업생들의 진학 결과

(2) 전형의 전망

2019년 대입제도 개편안(2019.11.28.)에 의해서 2024년 기준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방향에 의해서 향후 이어질 대입 전형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 (1)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폭 축소
- (2)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특기 사항의 강화

- (3)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상기록,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기록 미반영
- (4) 자소서 페이지에 의한 면접의 확대

학교 교육과정 상에 기업가 정신, 농사, 창업-창직에 관한 교과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직업체험 및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후 진로로 대학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많은 학생들의 인식 안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사회적 구조를 눈치 채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구조가 대학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조건 대학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갈수록 감소하는 학령인구 상황을 보며 경쟁적 구조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을 일정 등급에 못 미치는 탈락자로 취급하는 상대적 평가 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학습자들이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 창업 창직

INBP(Institut National de la Boulangerie - Pâtisserie)는 제과, 제빵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74년에 ROUEN에 설립된 국립 제과, 제빵 학교이다.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한 제빵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제과, 제빵 연합과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해 신제품의 재료와 기계 설비에 있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곳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여 제과, 제빵을 배우는 졸업생이 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디저트를 만드는 가게를 창업하여 새로운 레시피와 디저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 미래 대학, 대안대학 및 갭이어



MTA(Mondragon Team Academy), 홍동마을의 농사 전공부, 갭이어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들이 학생들에 의해 검토되고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MTA(Mondragon Team Academy)는 스페인의 협동조합 중심의 미래대학으로 기존의 대학이 갖고 있는 경직성과 이론 중심의 체제를 탈피하여 경영, 산업, 요식업, 사범,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과를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B학교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발전협력 방안을 위한 미래 대학을 세우는 일에 협력할 예정이다.

V. 결론

B학교의 실험적 시도는 교육과정이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배운다면 스스로 다양한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한 명의 학생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에게서 시작된 고민은 관련 책과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다. 예전 맞춤형 교육과정은 일부 특정 기능을 익히는 고등학교에서 다뤄질 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희박한 사례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자신이 배울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감안하여 학점제를 교육과정에 적용하였고, 학점제의 적용을 위한 현실적 기반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의 필요를 느껴 만들게 되었다. 또한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초기부터 자기 이해를 거쳐 다양한 진로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과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함께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5년 4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 계획, 개발, 실행, 결과분석, 설문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앞으로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고등학교시기를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막연하기만 한 학점제의 하나의 실제 예로 소개되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특히, 일반적인 교과목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 제과, 제빵, 농사, 스마트 팜, 드론, 플라워 아트 등 실제적인 과목들을 학생들이 찾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갖는 포용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향한 독특한 배움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관찰을 할 수 있었다.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고등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나 연구물들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현장연구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만들어진 정보나 사용된 보조 수단들이 다른 곳에서도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둘째, 실행연구를 진행한 학교의 학생수가 105명으로 비교적 통제나 관리가 일반 학교에

비해 수월하다는 것이다. 학점제를 원격으로 지원했던 학습관리시스템의 수용 한계 인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인원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데이터의 통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과 교사로 준비된 교사 자원을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멘토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참가자 전원의 긴밀한 동의와 시기적절한 정보교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밀착형 교육과정이라는 한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시작 전에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이나 과목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면서 학교 교직원들의 구성원만으로는 멘토를 채울 수가 없어 지역 전문가나 원거리 전문가와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끝으로 이런 사례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점제나 맞춤형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진로를 더욱 풍성하게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한다. 나아가서 학점제 기반 맞춤형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2021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2017
- 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2016
- 교육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매뉴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 교육부,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계획, 평생직업교육국, 2016
- 구자익, 남궁지영, 학점제 도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 김란주, 서경혜,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2018
- 김정빈,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17
- 김주아, 기초.심화과정 등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실행 상에 나타난 교육과정 쟁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2011
- 도봉고등학교,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도봉고등학교. 2017
- 박숙영,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좋은교사 2014
- 별무리학교, 2017학년도 별무리고등학교 교육계획서. B학교. 2017
- 서유정,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손정우, 배움의 공동체, 해냄 2015
- 온정덕,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맞춤형 수업의 통합, 2013
- 엘리엇 워셔 외, 넘나들며 배우기, 민들레, 2015
- 임유나 외,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맞춤형 수업의 통합 가능성, 2013
- 정재훈 외, 21세기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다학문적 맞춤형 교육과정 모형 연구, 2012
- 최동호,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유사교육과정 운영 사례. 경기도교육청. 2017
- Dianne L. Ferguson, "Designing Personalized Learning for Every Student",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1)
- Michael Russell, "Connected Teaching and Personalized Learning",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2013)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실행 및 성과 토론회

경기도융인교육지원청 장학사 주 주 자

1. 서론: 공교육에서의 고교학점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고교학점제를 초·중등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학점제 모델을 발굴, 일반고의 역량강화를 본격화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7). 2018년 8월에는 ‘22년에 제도의 부분도입 및 ‘25년 본격 도입을 핵심골자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21년 2월에는 ‘21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통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는 ‘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기반마련을 위해 개별학교 역량을 넘어 지역 내 교육청-지자체-대학 등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고교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의 연구학교, 846개의 선도학교, 34개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21b)¹⁾.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에서는 학생 선택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설과 책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와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초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하도록 진로 학업설계 지도를 체계화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과목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기초한 과목선택권 확대가 운영의 전제가 되므로 교육

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주된 과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학생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문화 및 운영 혁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의 5가지가 있다(교육부, 2021b).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필수과제로 다양한 지역기관 연계위한 교육협력센터 운영,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단위학교의 지역기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지역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으며, 그 이외에 교·강사 인력시스템 구축, 학습지원센터 운영, 도·농산어촌 간 강좌교류 모델개발 운영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과제 추진이 가능하다(교육부, 2021c).

과정 다양화, 특성화에 방점이 주어지고 있다. 즉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목 영역 간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고,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특성화된 교과목 개설과 공유,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과목선택권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 밖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다. 최소성취수준 도달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도 점차 강조하고 있어 연구학교와 선도지구에서도 책임교육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들의 운영 현황을 고찰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학교 도입이후 학생선택과목 이수 단위와 선택 과목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하여 진로 학업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정중심 평가가 활성화되고 수업변화를 통한 다양한 평가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다수 연구학교에서 교원기간제와 강사 채용 인원수가 증가하였고 홈페이지 조성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한 학교 공간 변화도 많은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과목 개설에 따른 수업 및 평가 부담과 업무과중이 제기되었고,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책임지는 운영시간 부족이나 대상학생 선정의 어려움, 최소학업성취수준 설정의 어려움, 학생 참여 미흡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 선택과목 개설에 대한 컨설팅, 공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소규모 및 읍면지역 과목개설 지원 강화, 교사 진로학업설계 전문성 신장, 학생 평가 신뢰도 향상 방안 및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보강과 수업시수 경감 등이 제안되었다(김현미 외, 2020).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를 통해 학생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현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이수의 질을 높여 실제적인 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학습자 육성을 강조한다. 도입 예정인 학점제가 현행의 단위제와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과목이수 기준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노은희 외, 2019). 단위제에서는 수업일수만 충족하면 과목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을 하게 되지만, 학점제에서는 과목별 이수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졸업을 못하게 된다. 즉 과목 이수의 질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대학진학을 지도하는 역할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과 맞

층형 학습을 지원하여 배움의 질을 보장하는 진정한 교수학습 전문가로 변화하며, 학교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밖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타 학교와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교육부, 2021a). 즉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은 기존의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배움의 결정의 주체가 되고, 교과에서 최소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며, 학습의 장을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 간,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교육생태계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즉 자기주도성과 책임교육, 학습생태계 확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2. 대안교육으로서 별무리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상찬 교장선생님의 발제문은 별무리학교에서 지난 5년 4개월 간 실천한 고교 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찾고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은 치밀한 진로지도의 필요, 학생에 대한 면밀한 이해, 교사의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 학습의 장의 확대, 집단지성의 구체화, 원격지원 프로그램, 실천 중심의 학습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고 보고한다. 교사일방에 의한 교육과정 구성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배운다면 스스로 다양한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한 명의 학생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점제의 현장 적용력을 높여, 고등학교 시기를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5학년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가치교육과정을 정선하여 중핵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교과교육과정이 기존의 획일화된 체제에 있음을 발견하고 3S(Same space, same subject, same speed)에서 3A로(Any space, any subject, any speed) 전환을 통해 개인차가 반영된 학습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던 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교학점제의 지향점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교과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만들거나 주도하는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학점제가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제과, 제빵, 농사, 드론, 플라워아트 등 실제적 과목을 학생들이 찾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입시위주 교육과정이 갖는 포용의 폭을 넓혀 자신만의 진로를 향한 독특한 배움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학점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습지원시스템은 개별 학생의 개설교과 정보, 수강신청과 학습계획서, 시간표와 강의실 사용정보와 전체적인 안내와 관리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 실과 시스템을 모두 하나로 묶고 소통하게 하는 맞춤형학습지원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학교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철학적 가치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은 필수학점으로 하고, 개별학생 필요에 맞는 과정은 선택학점으로 하여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삶의 주요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검사와 상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및 인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경험하며, 롤 모델과의 동행과 교육공동체로 활동하면서 삶으로 배우는 공동체 활동 과정을 중시한다.

학생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측면에서 볼 때, 별무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 과목 개설의 주체로서 학생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학점제에서 수업개설 주체를 교사, 학생, 외부 멘토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형태의 평가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상찬 교장선생님의 지적대로 “결국 평가도 이 세 영역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지 여부가 학습 과정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다. 교과목 개설의 주체를 교사, 학생, 외부 멘토로 보고, 개설 주체에 따라 평가요소가 다소 상이하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시평가, 출석과 학습태도 등의 평가 형식이 있으며 등급은 A-B-C 3단계에 최소기준충족을 60점 이상으로 보고 있고, 교사개설과 외부 멘토에 의한 수업에서는 미이수를 의미하는 F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학생이 수업을 개설하고 평가자로서 자신을 포함하는 경험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기에 적합하며, 성취정도에 근거한 평가척도를 지니고 있어 학습과정과 결과에서의 질 관리도 담보되는 부분이라 파악된다. 학생개설 수업의 경우 치밀한 학습 설계 계획이 필요하여 교과 멘토의 안내가 절실하다고 하였는데, 학생이 주도하는 과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개설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가. 교사 개설 수업의 평가

교사가 개설한 수업의 경우 교과 멘토의 평가가 대부분 100%이다. 그 비중은 각기 교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간평가, 기말평가, 성실도, 태도를 평가 요소에 포함시켰다.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평가계획	본인	0%	
	멘토	10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성실도 20%, 학습태도 2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매우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 79-60 F - 학점 이수 하지 못함 : 59점 이하		

[그림] 수학II(상)A-교사개설 수업의 예

나. 학생 개설 수업의 평가

학생이 개설한 수업의 평가는 수업의 개설 전에 교과 멘토와 함께 논의되고, 쿼터 말 평가 시간에 멘토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은 수업에 참가한 학생의 본인 평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과 멘토의 평가 내용에 의존한다.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평가계획	본인	10%	
	멘토	90%	중간고사: 20% - 기말고사: 20%, 수시평가: 20% , 출석: 20% - 태도: 1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79-60		

다. 외부 멘토 개설 수업의 평가

학교 밖의 전문가를 통한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외부 멘토를 통하여 수업을 개설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학교는 외부 멘토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강의 조건을 안내하며, 최종적으로 멘토의 평가가 학생의 어드바이저를 통해 학습 상황이 교과세부 특별 활동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교재			
정지오 강민성 PD님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평가계획	본인	20%	자신의 성실도
	멘토	80%	수업 결과물, 태도점수, 숙제 성실도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매우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79-60, F - 학점 이수 하지 못함: 59점 이하		

-발제문 pp. 14~15

둘째, 필수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질 관리와 책임부여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인다. 쿼터제로 교육과정과 학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일정기간에 주기적으로 학습의 양과 질을 관찰하고 판정하여 피드백한다는 것을 말한다. 필수와 선택, 최소와 최대 학점신청 등 학생의 선택과정에 있어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적정화하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의 질 관리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인다. 쿼터별로 학습결과 발표 및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멘토, 어드바이저, 본인)에 기초하여 이수 여부가 평가된다는 측면에서 책임교육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책임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엄격한 질 관리와 개별 학생의 특성을 맞추어 학생 개별화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대체 과목이나 활동이 과목이수로 인정받고, 선택학점으로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하며 학습 성취를 고려하여 멘토와 어드바이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점수라는 단일 요소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발표회를 통해서 질적인 성찰과 교육적 판단의 여지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학생의 맥락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교는 **쿼터(4학기)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다양한 학습 설계를 장려하고 쿼터 종료 후 **프로젝트 학습 주간**을 통해 학습의 보충, 심화, 현장(학교 밖)과의 통합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 학생은 **필수학점과 선택학점, 졸업 요건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정해진 규정과 시기에 따라 이수한다.
- 한 쿼터당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필수 6학점, 선택 17학점**이며, 선택 학점은 20학점 이상 신청할 경우 어드바이저와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다.
- 필수학점은 졸업을 위해 매 **쿼터별 6학점씩 100% 이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사가 인정하는 대체 과제 및 활동으로 과목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선택학점은 학교가 개설해 놓은 다양한 교과 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며 학습 성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멘토와 어드바이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학생은 쿼터별로 학습결과에 대한 **종합 발표회 및 멘토 평가, 어드바이저 평가,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이수 여부를 평가**받는다.

-발제문 p. 8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의 진로에 맞는 대학진학이나 추가적인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발제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교육공동체의 미션과 지향점, 교육과정 개설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무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지점은 ‘자기주도성과 책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질 관리’, ‘학생 맥락을 고려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적용’이며 이는 일반적인 공교육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값진 성과라고 보인다.

3. 대안적 교육 실험을 넘어 대안적 삶의 가치 탐색을 위하여

가. 자기주도성(student agency)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OECD(2019)는 ‘학습 프레임워크 2030(Learning Framework)’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개혁을 위한 학습 나침반을 제시했는데, 기초 개념으로 주도성(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향해해 나가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전 생애에 걸쳐서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

였다.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 및 공동의 웰빙(well-being)으로 보고, 주도성(agency)은 타인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등 상호관계에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상호 지원하는 학습자이며, 여기서는 책임감 있는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해 나가야하는데, 이때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 인물이나 교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OECD, 2019, 15). 이와 같은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을 바탕으로 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학습 나침반에서 강조되는 주도성의 아이디어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 기제로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 맞춤형 진로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감염병 유행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인간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에 주목하고 개별화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적극성과 주도성을 지닌 책임감 있는 인재양성이 긴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공감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주도성과 관련하여 보면, 대안교육에 깊이 자리한 학습자 중심, 학습자 존중과 신뢰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주도성을 키워주고 이는 사회 변혁적 의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대안교육 경험자인 학생과 면담내용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주도성을 허락하고 책임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했을 때,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안적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의 양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무학년 학점제의 효과: 흥미와 동기유발, 책무성과 자기주도성

학생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선택이 본격화되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더 높는데 입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과는 달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스로 관심과 흥미가 있는 수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들이 좀 힘든 수업인데, 과제라던가 이런 거 많아도 하고 냈을 때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것도 배웠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략) 내가 이걸 못 따라가겠다 라거나, 이런 거 좀 흥미가 있으니까 이 수업 그냥 들어야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별로 아닌데 저 수업 많이 들으니까 가서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아이들은 없고요(교감 김민국).

면담참여 학생은 무학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향점으로 맞지만 현재 우리사회에 연령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연령에 따라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므로 교육변화를 통해 올바른 이해와 사회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수업 내에서 어떤 문제있다 라기 보단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적인 사회적인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나이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고학년들이 다소 어떻게 보면 심화차원을 원하고 저학년은 그냥 맛보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업에서의 욕구 자체도 다르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교육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거니까 이걸 교육이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학생 정민환).

-주주자 외(2017, pp. 152~153)

이상찬 교장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개설 경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참여하는 수업은 생성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온정덕, 2020),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계기이자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설의 주체로서, 평가의 참여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삶 속에서의 얇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와 직업을 찾아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나.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과정의 공유

지역사회에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안팎 학생들 모두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안교육기관법』²⁾ 제2조의1에 따르면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 특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안학교를 포함한 대안교육은 분과학문중심의 지식영역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 평화 등 특정 영역에서 맞춤형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교육자치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 삶의 바탕이 되는 지역연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교학점제 시범도입과 더불어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 간 경계를 낮추고 물적, 인적자원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 법령들에 기초할 때, 대안교육 장면에서는 공교육에서보다 특정 영역에서 학생 삶과 삶의 연계를 위해 마을에 기초한 교육적 체험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마을을 접점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질적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미래의 공동체가 맞닥뜨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높여 공동체와 자아의 웰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발표문에 소개된 흥동마을의 농사 전공부와 관련하여 개설된 교육과정 혹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활동에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안교육 참여 학생들도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1.1.12.제정되었으며, 2022.1.13.시행 예정이다.

지역 내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습자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마을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이 개발된 경우 지역소재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갖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성장에 더욱 기여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발제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생 과목 선택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전문가와의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나 온라인으로 개설된 수업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나 대안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최소성취수준 설정 및 유연한 적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고교학점제 시범도입 운영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학생 선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 성취 및 성장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대안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책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신태섭, 2014). 즉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살펴야 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졸업하는 학사제도이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출석일수를 확보하면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별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가 미흡했다(교육부, 2021b, 95). 최소성취수준이란 각 과목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말한다. 교과이수 기준은 학생이 해당 교과목 성취기준들을 일정 시간을 거쳐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를 말한다(노은희 외, 2019). 우리나라는 현재는 학점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교과이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점제 도입이후에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교과이수 기준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질 관리를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 교육과정을 따르는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다는(맹영임 외, 2008). <표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나 대안형 특성화고와 달리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 권한을 부여받을수록 입시나 서열화를 위한 수업과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위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수만큼 교육과정 운영과 책임교육의 양상도 다양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교육과정이나 평가 영역에 있어서 여백이 많을수록 공교육의 제도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과 실험의 스펙트럼도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찬 교장선생님의 학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고, 개별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멘토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상의 질 관리가 있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과 성장이 가능한 질적인 교육(quality curriculum)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표 1〉 대안교육기관 유형별 특징

구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근거 법령	규정 없음 (시행예정인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고등학교)
목적	학교부적응문제 해소, 다양한 교육구현 등	-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인성위주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 교육 등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학기	-	학칙으로 정함	2학기(자율학교 지정시 예외)
수업일수	-	180일 이상	190일 이상
교육 과정	목적에 따라 별도 편성	- 학칙으로 편성 - 국어 및 사회(국사 또는 역사 포함)는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 운영	-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지침(일반고에 준함) - 204단위(교과180, 창체24-필수이수단위 94), 교과군별 필수이수, 진로선택3과목이상, 기초교과50%이하

구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평가	과목에 따라 정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 시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성취평가제, 등급제 적용 -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5단계성취도(석차등급산출. 교양교과제외) - 진로선택과목 3단계성취도(석차등급 미산출) - 교양교과군 P - 13명 이하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성취평가(석차등급 미산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 시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성취평가제, 등급제 적용 -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5단계성취도(석차등급산출. 교양교과제외) - 진로선택과목 3단계성취도(석차등급 미산출) - 교양교과군 P - 13명 이하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성취평가(석차등급 미산출)
학력인정 여부	미인정	인정	인정

4. 결론을 대신하여: 문화로서 대안교육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인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교육부, 2021a). 경쟁에서 포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업설계의 주체로서 학생지원, 학교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교육 구현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양성과 자율성,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는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 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증가추세다(이덕난, 2021). 이는 공교육의 한계가 노정된 상황에서 대안적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핵심 요소다. 대안교육은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 적용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유연한 적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이종태 외, 2018). 즉 질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대안적 교육활동, 대안적 삶의 확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교육에서 ‘대안’은 ‘정해진 목적 또는 목표달성을 위해 창출되는 여러 방안’을 말한다. 즉 대안은 복수의(plural) 개념이다.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사실 모호하나(이병환 외, 2004), 대안교육은 기존 학교교육의 변형된 형태로서 대안적인 것을 찾으려는 교육변화의 실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존 학교교육의 형식과 내용 자체를 뛰어넘는 교육변화의 실재를 언급하기도 한다. 즉 대안을 협소하게 교육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류 이상을 위하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교육이념에서 확장하여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의 역할과 기여는 다를 것이다. 후자와 같이 폭넓게 접근할 때 개인과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 직면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창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설득력을 갖는, 교육의 대안(alternatives in education)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맹영임 외, 2008, 43-44)

이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발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과 교사로 준비된 교사 자원을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멘토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³⁾. 교육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교육과정’과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매개로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삶과 연계된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학교와 같은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교사소진에 대한 지원, 교사 역량강화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대안교육 이해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대안교육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사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문의 사례학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이 질적인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히 학력 미인정이 되는 것도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들의 사례가 더욱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후반 대안교육이 탄생한 이래 대안교육의 철학과 교육적 실험들에 대한 학습은 공교육에 적용을 통하여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져 왔다. 작은학교운동이나 혁신학교운동 성과는 대안교육이 축적한 경험에서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성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

3) 많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들도 교육과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위한 교사교육, 담임교사 역할 재구조화 등 기존의 교사 역할을 넘어 새로운 역할탐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이종태 외, 2018). 이제는 단순한 공교육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대안 모색만이 아닌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질적인 변화의 기제가 되도록 하는 교육의 대안이 필요하다(강태중, 1996; 이종태, 2001; 맹영임 외 재인용, 2008, 43). 기존의 학교교육의 대체적 보완교육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의 실험으로 이끌어 결과적으로는 우리사회 삶의 양식의 변화로 이끄는 ‘문화로서 대안교육’이 지속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태중(1996). 새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1a)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1b) 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안내서.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21c).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 교육부,
- 김현미, 이주연, 이수정, 김태환, 이상아, 김기철(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노은희, 이광우, 김진숙, 신향수, 변희현, 주형미, 김영은, 지영래(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맹영임, 김민(20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 연구보고 08-R06
- 신태섭(2014). 한국 대안학교의 쟁점 및 발전 방향.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자료집. pp. 391-401. 교육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온정덕(2020).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515>(2021.7.20.인출)
- 이덕난, 최재은(2021).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 정책적 개선과제. NARS 입법 정책 제81호.
- 이병환, 정영근, 김순남(2004).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종태(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 이종태, 하태욱, 이병곤(2018) 대안교육 이해 증진 및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주주자, 김위정, 이현미, 이동배, 박수진(2017). 고교 무학년 학점제 구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OECD.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Paris: OECD.

주제발표 2.

배움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 성 원 (거꾸로캠퍼스 대표)

토론문

성장하는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여 승 욱 (대구해울중·고등학교 교사)

배움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사)교육실험실21 거꾸로캠퍼스
대표(교장) 이 성 원



삶의 주체성 배움과 삶을 계획하고 책임지다.

거꾸로캠퍼스는 미래교육 실험학교이다. 애초에 ‘대안교육’으로서 목적을 정하고 설립하지 않았다. 거꾸로캠퍼스는 **공교육 자체에 대한 ‘대안교육’ 이자, 미래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최적의 교육,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제 구현하는 교육, 배움의 목적을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실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지향한다.

거꾸로캠퍼스는 ‘대안교육’의 범위를 더 확장하고 있다. 공교육이 고등교육과 맞물려 입시 중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과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에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거꾸로캠퍼스의 대안교육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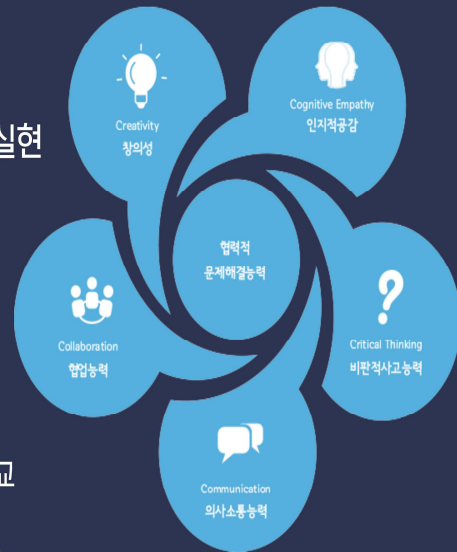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 실현

비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학교

학생이 자신의 학습과 삶에 주도권을 갖도록 돕는 학교

학생이 미래 사회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학교



G-school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WHY

“자신을 탐구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힘”

“열정을 키우고 실행하는
학습 경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협력 학습의 기회”

“함께 성장하며 나타나는
삶의 변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

“N명의 학생을 위한
N개의 길”

G-school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HOW

교육의 변화, 학교의 미래를 꿈꾸며 과감히 없애고 실천하는 배움의 9가지 원칙

01 학년

나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른
무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02 경쟁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협업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3 시험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 목표를 세우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합니다

04 성적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진단하는 성장기록부를
발행합니다

05 선발기준

이전 학력이나 학점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06 졸업장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에시트(Exit) 제도를 운영합니다

07 정답

학생 개개인이 각자
배움과 삶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데 집중합니다

08 선생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 모두 별명을 씁니다

09 캠퍼스

가장 효과적인 배움의
환경을 위해 시설과 지역을
이동하며 학습합니다

G-school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WHAT

지식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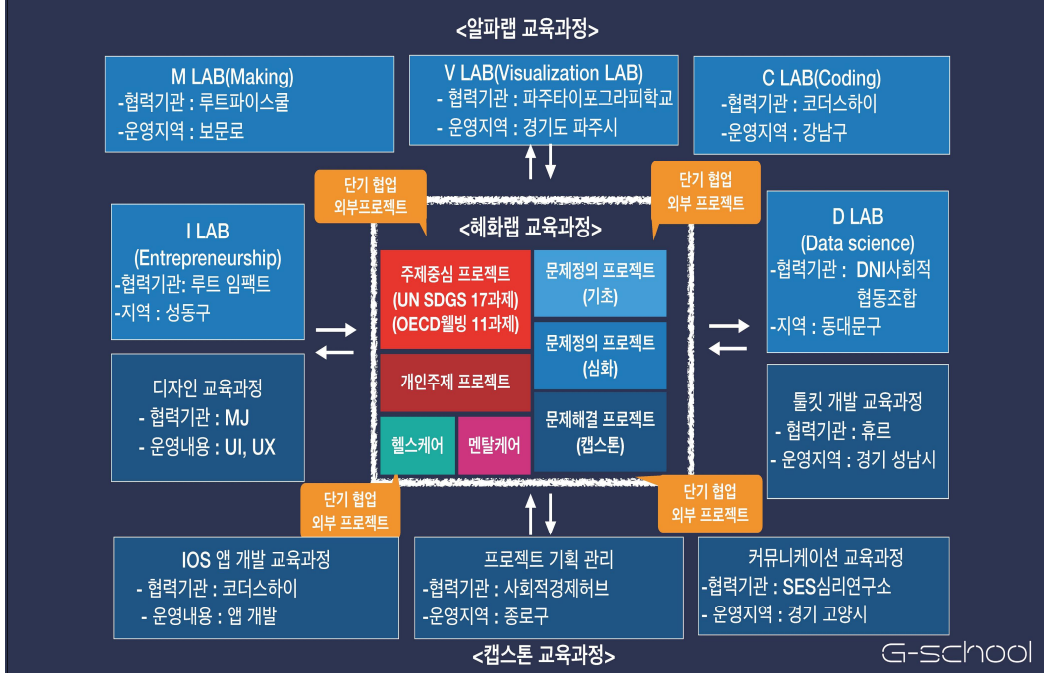
태도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통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가
실천	자신의 관점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협력	타인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가
표현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성찰	스스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책임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도전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21세기
진짜 삶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

G-school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교육의 다양성



시도에 두려움이 없어지다

준비된 학생이 거꾸로캠퍼스에 입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입학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거꾸로캠퍼스가 추구하는 교육가치와 방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이다. 학생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습을 하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거꾸로캠퍼스의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내적으로 단단해져 간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피하기보단 해결하려는 행동이 앞서게 됐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 일반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마인드 자체가 거꾸로캠퍼스를 졸업한 나와는 완전 다르다. 선택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많다.” (핑크)

“거꾸로캠퍼스에 가기 전에는 난 뭘 해도 안 될 것이라 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하지만 거캠퍼 다니면서 작든 크든 여러가지 개인주제 프로젝트, 문제정의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지식을 쌓는 등의 **성과물들을 스스로 만들어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도전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건 졸업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제이)

능동성을 갖추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애초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지 않는다. 목표를 정해 놓는다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으로 점점 어려운 지점을 통과해가며 배움의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순간 자신이 설정한 목표 이상을 뛰어넘었을 때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코칭 교사는 어떤 수준까지 안내해야 하는지, 개입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시작된다.

“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나아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면서 더 잘 만들어보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더 능동적으로 만들었다.**” (연두)

“ 일반 학교에서 제출하는 과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설계도를 보고 조립한다는 느낌이라면, **거꾸로캠퍼스 과제는 설계도를 만들고 레고를 조립하는, 개인마다 다 다른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 같다.**” (웅이)

생활습관의 변화: 목표, 계획을 세우게 되다

과감한 도전과 능동성을 갖추게 되면, 더욱 정교한 프로젝트를 위한 디테일의 힘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독서교육, 생활지도, 민주시민교육 등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무수히 겪는 갈등과 중재를 경험하며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세우는 힘과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다. 코칭교사는 팀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단서를 안내할 뿐이다.

“ 생각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어 이제 있네, 해야지' 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편으로 바뀐 것 같다.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게 생긴 것 같다.**

생활습관, 생각 등이 몸에 배어 있기에 뭔가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거캠에서 계획, 목표를 정하는 부분이 습관처럼 되었다. 목표 설정에 따라 실행도가 많이 높아졌다. 성찰도 더 빨라졌다.**” (어느 부분을 더 해야 하고 등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하나)

능력에 집중하다

거꾸로캠퍼스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가르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퍼실리테이터, 모더레이터, 비판적인 동료, 학습 파트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가르침의 시대를 보내고, 배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학습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자신의 교과 영역 전문가로서 안목을 지녀야 하며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 주도 수업디자인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수많은 해봤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끝을 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문제정의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고, 나의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쿵쾅)”

아직 부족하겠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값진 경험들을 했다. 5C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경험을 하면서 나의 실수를 발견하고 고치고, 계속해서 배움을 만들어냈다.” (양경)

나를 바로 알기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이끌어내기, 세분화된 수요, 교육시스템의 다양화

학교교육을 중단하였기에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자퇴 또는 유예와 함께 ‘학교밖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교육의 자만이다. 변혁적인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공교육의 ‘공’은 과감히 재정의해야 한다. 진짜 개혁은 꼭 지키고 싶은 것조차 전면 디폴트 값에 두고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학교교육은 무엇을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까. 과거에는 ‘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그 심각성을 누구나 공감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일까. ‘학교밖청소년’은 매년 5만 명씩 늘고 있다.

국가는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방향을 더욱 확장하고 보장해야 한다. ‘학교밖청소년’으로서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기 청소년’이 아닌, 다양성의 교육을 선택한 학생으로 존중받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학교 밖에서 교육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닌, 맞춤형 교육을 선택한 것이다. 학교 안에서 볼 때는 ‘위기 청소년’이지만, 학교 밖에서 볼 때는 ‘더 큰 가능성을 품은 청소년’이다.

거꾸로캠퍼스 배움 여정



흥미와 진로 탐색이 가능했다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개인, 또는 팀이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코치는 각 프로젝트 수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 외부의 전문가와 교육내용에 대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주도 수업으로 디자인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티칭하여야 한다.

우선,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개주프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 분야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교육 스타트업의 직원부터 교사 등)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진로로 향하는 과정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깡깡)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다 보니깐 진짜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흥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다.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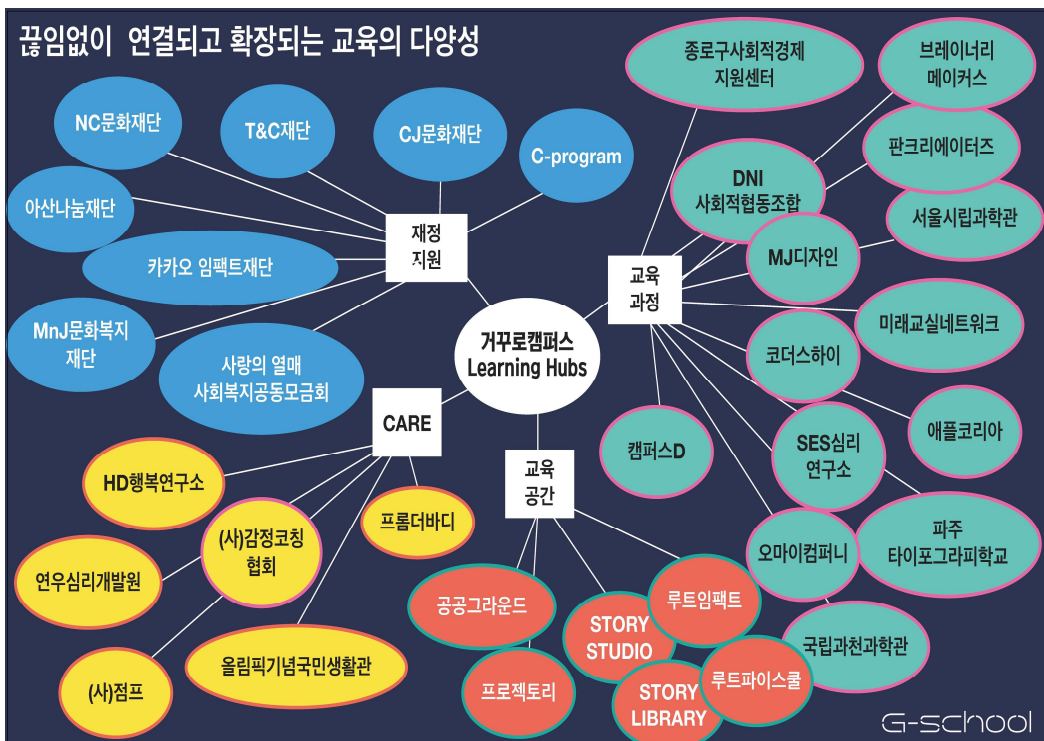
거캠 내에서 아무래도 개인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저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때 했던 고민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롱)

넘나들며 배우기

개방형 학습 허브, 다양성 그리고 과감한 교육실험

교육의 다양성은 모든 학생들이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선택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이는 공교육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공교육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변혁적인 시대에 **미래교육의 방향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실험으로서 역할을 대안 교육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교육의 학교와 인가/미인가 대안학교가 궁극적으로 함께 추구하는 성장’은 제도권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학교안과 학교밖을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교육의 학교와 인가/미인가 대안학교의 협력적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협력 보완하려고 해도 결국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면,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인가/미인가로 구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실험 정신을 놓치고 있다. **제한된 실험은 제한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변혁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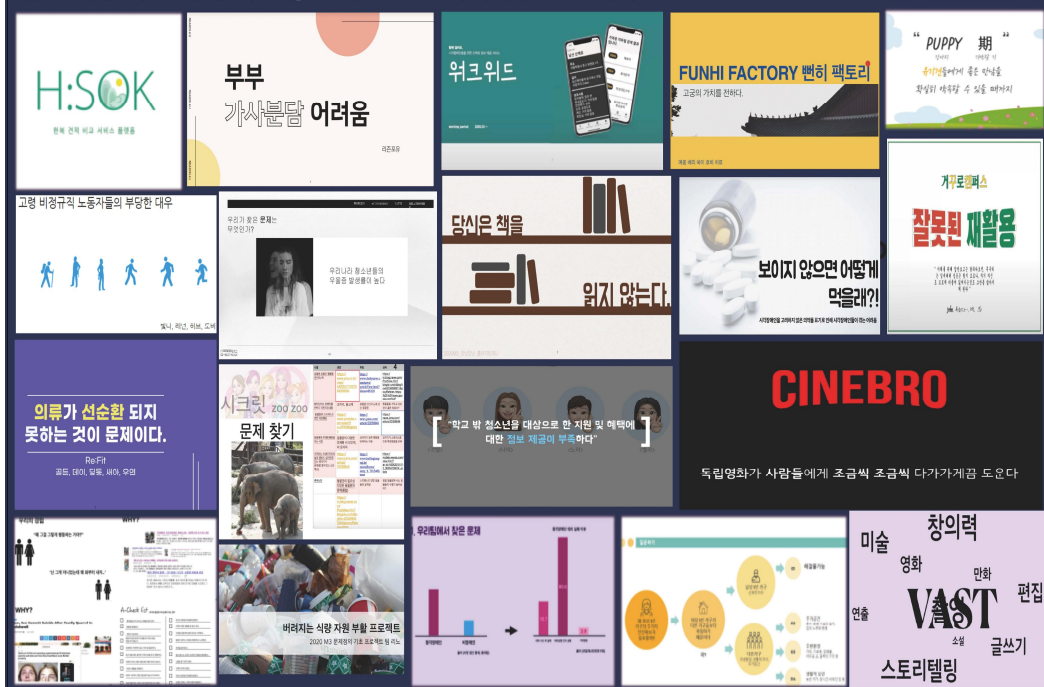
세상과 프로젝트가 연결되다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 학습과 세상의 문제를 연결할 때 배움은 무한대로 확장된다. 미래학교의 교육과정은 유연해야 한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할 영역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프로젝트가 시간 축과 공간 축에서 늘 변화듯이 교육과정도 그에 맞는 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새로운 솔루션과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었다. 조금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시도해보거나 독학을 하기 어려웠는데 두달 정도의 시간 동안 알파랩 학생들, 알파랩 쌤들(외부 전문가)과 같이 학습을 하다보니 필요할 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다다)

“지나가는 사람들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고 솔루션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막연했다.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 00 팀을 만들었다. 오랜 기간을 거쳐 논문도 보고 사람들 인터뷰, 설문조사 등 실제로 소방 시설에 있어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양갱)

실제 세상의 문제 정의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극대화



동료 학습의 진가를 느끼다

교육의 근원적인 목적을 한 인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배움의 여정은 좀 더 명확해진다. 학생이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익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삶과 세상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자, 교육과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동료 학습은 개인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다.

“문제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터뷰도 하러 다
 녀보고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심화 되는 과정에
 서 재미와 호기심을 느꼈으며 한 단계 나아가면서
 성취감도 느낄수 있었고, 무엇보다 팀으로 같이 활동
 을 하면서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과 같이 협력해 나가
 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성장해가
 는 게 매우 좋았다.”(옹이)

개인주의, 문제정의, 교과수업, 문제해결, 다양한 랩을 다니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배움을 통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들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 가장 솔직하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바로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 추상적으로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면 같이 고민해주고 너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해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좋았다. (모모)

[illegible]

디지털 리터러시 세상과 연결하는 도구

“스스로 학습을 할 때에 넘버스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 내용은 노션이나 pages에 정리한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산출물이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Logic pro x나 final cut pro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수달)

<졸업생들이 주로 사용했던 디지털프로그램 목록>

- 문서 제작 : 페이지스, 워드, 아이북스author, 인디자인
- 생각의 표현 도구: 마인드마이스터
- 스프레드시트: 엑셀, 넘버스, 구글시트
- 정리도구: 에버노트, 노션
- 온라인협업 및 소통 도구: 노션, 슬랙, 줌, 구글도구, 스카이프
- 프레젠테이션 제작 : 키노트, ppt
- 동영상편집: 파이널 컷, 에프터이펙트, 라이트룸
- 디자인툴: 포토샵, 일러스트, xd
- 코딩: Github, VSCode, R프로그램, 비주얼스튜디오코드
- 3D 모델링: 퓨전360, 킨커캐드, cura
- 음악: 로직, 개러지밴드

공동의 프로젝트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팀워크를 배우다

역량	졸업생 의견
□ 협력 및 소통	“사람을 이끌고 증대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 <u>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u> 을 기를 수 있었다”.
□ 리더십	“지금도 팀을 리드 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u>실패를 많이 하면서 팀을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많이 배웠다고</u>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게 팀플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 세상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확장	“ <u>세상을 바라보는 시선</u> 이 달라졌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피하기보단 <u>문제를 정의하여 해결하려는 행동</u> 이 앞서게 됐다. <u>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u> ”

피드백을 통한 성장,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시험이나 성적표 없이 성장은 가능한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는 과연 가능한가. 거꾸로캠퍼스 학생들에게 있어 평가는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필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의 시선으로 객관화하여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성장 좌표에 놓고 성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점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었고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합니다. **점수는 그냥 그 사람을 딱 평가하고 말지 더 나은 나로 만들려면 스스로를 엄청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돌아보기도 전에 자책에 빠지고 서로를 비교하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드백을 통해 저를 성찰할 수 있었고 더 나은 나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양갱)

“누구도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공교육처럼 앞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유가 넘치게 된 시야는 자연스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게 된다.** 그것은 남을 향한 도움으로 변화하고 결국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제이)

미래교육의 시작

거꾸로캠퍼스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실험학교이다. 미래교육이란 무엇일까? 당연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행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미래의 정의는 아직 오지 않은 추정의 앞날이 아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순간순간 직면하는 시간이 우리가 가장 확실히 깨닫게 된 조금 전의 미래 아닐까? 그렇다면, **미래교육이란, 바로 지금 만나고 겪는 문제를 정의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학습자가 두려움 없이 급변하는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잠식하는 인간의 플라스틱 사용 문제, 견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기,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창궐 등이다. **미래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발견하여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하고 학습의 주도권을 통해 삶의 여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 세상에서 진짜 배움으로 학습을 내재화할 수 있다.

미래교육의 콘텐츠

그렇다면, 미래교육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미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길러야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될까? **거꾸로캠퍼스는 비판적 사고능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인지적 공감능력, 이렇게 5가지를 중점에 두고 있다.** 이 5C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협력적 문제 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매우 훌륭한 교본이다. 기본기를 착실히 만들어주는 좋은 안내서이다. 교과서를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서만 머물고 마는 교육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거꾸로캠퍼스는 교과서가 없다.** 그러나 전문 교과영역에서 배워야 할 기본기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서 취하고 콘텐츠를 실제 급변하는 세상에서 구하여 활용한다.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잘 배우면 미래교육에 다가서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단지 도구교육일 뿐이다. 정보를 습득하고, 표현하는 스킬이다. **거꾸로캠퍼스는 미래교육의 핵심을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리터러시는 이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잘 기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움을 확장시켜주는 도구로서, 지식의 습득 방법과 표현을 돕는다. 거꾸로캠퍼스는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학습을 더욱 확장 시켜줄 도구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단지, 교육의 핵심과 도구 교육의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 미래교육의 방향을 잃게 될 뿐이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그들이 맞이하게 될 **급변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거꾸로캠퍼스는 **변혁적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거꾸로캠퍼스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능력인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대구해울중·고등학교 교사 **여 승 욱**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공교육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매우 거세게 느껴진다. 혁신학교의 교육 실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예정된 고교 학점제 등을 마주하고 있으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나 학제의 변화 같은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STEAM교육, 과정 중심 평가 등 수업 현장인 교실 안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코로나-19’라는 대재난 앞에서 공교육은 원격 수업과 온라인 등교라는 초유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대재난을 마주하면서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 질문을 곱씹으면서, 이전에는 예사롭게 생각했던 것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변화와 재난의 현실 앞에 배움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배움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거꾸로캠퍼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필자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공립 대안학교의 교육에 대해 여러 번 곱씹어보게 되었다. 대안교육이 기존의 교육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대안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안교육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교육의 중심을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에 두고자 하며, 분절적인 교과 지식이 아닌 삶의 실상에 가까운 통합적 활동을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 또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거꾸로캠퍼스는 대안교육을 목표로 설립하지 않았으나, 미래학교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공립 대안학교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교사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보태고자 한다.

1. 프로젝트 활동과 주제 선정

현재 공교육 현장에도 학습자 중심 교육에 관한 논의나 시도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역량중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논의인데, 교육의 일선인 수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질문 만들기 수업, 거꾸로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메이커 수업 등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다양한 시도들은 매스컴이나 출판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밝힌 6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역량중심 교과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가 ‘2020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역량중심교육’이라는 흐름이 학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과는 매우 달라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금의 학교교육으로는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역량중심교육’을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구현하고자 한 대표적인 시도가 ‘프로젝트 활동’이다. ‘프로젝트 활동’이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몰입하도록 이끌며,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도전과 참여 정신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급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협업 과정을 일컫는 것이며, 프로젝트 활동을 학습으로 도입한 프로젝트 학습은 실제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학습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을 통칭하는 경향을 보인다(솔밭중학교 학습공동체, 2019: 66).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 또는 수업은 이전의 교수자 중심 수업에서 진일보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경험을 수업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문제를 던지는 자는 학습자가 아닌 교사이며, 학습자는 문제해결을 실행하는 자리에만 둔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활동이 문제인식(정의)-검토-계획-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일선 학교에서 진행

되는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가 던진 과제 또는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검토-계획-실행)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방식은 교사가 학습 상황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프로젝트 활동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 학습자가 제대로 문제를 찾아내기만 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자신과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질문하며 얻는 자아 정체성과 직결되며, 프로젝트 학습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습자 스스로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학습자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학습자가 마주하는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학습의 국면이다.

이런 점에서 대안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학습 또는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탐구 주제나 문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배움의 시공간을 열어두는 과정,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소박하고 좁은 대안학교 근무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학습자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설정한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후 프로젝트 진행의 과정이 대부분 순조롭게 이어진다. 이런 경우는 학습자가 자기의 흥미나 관심, 자기 삶의 요구와 맥락이 비교적 뚜렷하고,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힘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탐구 주제를 잘 찾지 못하는 학습자는 많은 경우 도전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학교생활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 변고를 겪고 있거나, 자기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탐구 주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학기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학생들은 학기를 보낼수록 빠른 속도로 자기의 탐구주제를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성장을 교사와 학생 모두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도전과 실패는 저절로 다음 프로젝트 활동의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되거나, 낮은 수준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의 본래 취지인 문제해결력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학습자 곁에 있는 어른인 교사가 필요하다. 학습자 스스로 도전적인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착오를 시도라는 관점으로 학습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어떠한 시도도 그 자체로 격려 받아야 하며, 다양한 시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성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깊은 유대관계도 필수적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 주제를 찾아 해결을 시도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야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거나,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프로젝트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는 학습자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활동 단계,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 교사가 언제 어떤 지점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에서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끊임 없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방관과 참견 사이에서 학습자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예술에 가까운 일이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는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적 속성을 가지는데, 그것도 학습자마다 기질과 특성, 요구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와 1:1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기존 학교 체제의 교사와는 확연히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사는 권위 있는 교과 전문가, 평가자에서 학습자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자 상담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2. 프로젝트 활동과 피드백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배움을 얻는 것은 문제를 정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실행하는 과정 전체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처음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결국 어떤 결과와 마주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 전반에서 성찰이 이루어진다. 성찰의 내용과 범위는 무척 넓겠지만, 잘한 것과 부족한 것, 느낀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곱씹고 갈무리하는 피드백의 과정이며, 문제가 된 대상(세계)과 자신

에 관해 배우고 다음의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피드백의 차원에서 볼 때 개별 프로젝트 활동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한 외부의 피드백이 어렵다. 도전하고 있는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거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이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그렇지 않은 이의 피드백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개별 학생이 설정한 문제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와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¹⁾ 같거나 유사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동료의 피드백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해결의 경험은 또 다른 시도의 에너지가 되고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팀 단위 프로젝트 활동은 팀 구성원 개인의 개별적 활동 총합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복잡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팀 내에서는 구성원들의 개별 활동에 대한 상호 피드백과 팀 단위 활동 진행과정에 대한 자체 피드백, 그리고 팀 바깥 전문가나 다른 팀에서의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이 진행된다. 특히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프로젝트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데, 구성원들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 수준 높은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견잡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 점에서 팀 단위의 프로젝트 활동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별 혹은 팀 단위 프로젝트 활동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여러 양상, 즉, 문제 해결과 성취에서부터 갈등과 혼란, 실패 등 활동의 전 과정을 모두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갈등과 혼란, 실패 같은 부정적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뒤편은 최종적으로는 학습자에게 있겠으나,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도한 취지에 대한 공감과 지지,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적절한 질문, 갈등과 실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관점의 전환을 돕는 다양한 이야기, 시도를 위한 격려 등 다양한 피드백은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지나친 참견이나 맥락에서 어긋나는 피드백은 쓸모가 없거나 학습자의 동기를 빼앗아버리는

1) 이런 맥락에서, 미국 매트스쿨에서 시작되어 현재 대안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교육은 개별 학생들의 삶에서 배움을 촉발하는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학습자가 전문가의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LTI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분야를 찾고, 직접 참여하면서 배운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교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습자의 교육기획자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격려하거나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하고 배움으로 안착될 수 있는 교육활동(발표회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는 학습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꾸준히 살피는 일이 필수적이다.

덧붙이자면, 긍정적인 피드백 문화를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사실 수행의 결과보다는 과정, 시도하고자 하는 취지나 동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문제 설정이나 수행 과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활동의 진행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습자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여 학습자의 자존감을 증진한다.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인 피드백 또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자주 일어나면, 다음 프로젝트 학습을 시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으며 방황하기도 한다.

3. 삶과 배움, 그리고 교사

배움의 가장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함이다. 삶의 과정이 새로운 맥락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질문과 맞닥뜨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삶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배움의 이유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최근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역량’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역량, 곧 삶의 힘이 돈이나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워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진정한 삶의 힘이라면, 그 힘은 몇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역량이 맥락 의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찬승, 2020)에서, 역량에 집중하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교육적 맥락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입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결정적인데, 이 상황에서 교사는 구체적 학습 상황에서 끊임없이 고유한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주관적 지식을 형성하는 주체(남미자 외, 2019:221)이며, 이 과정에서 교사도 학습자와 더불어 성장한다. 이런 점에서 배움의 장면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습자의 도전과 성취를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는 희열, 교과

전문성 차원을 넘어 ‘교사됨’과 ‘어른됨’을 숙고하는 성숙한 인격, 성장과 삶의 과정을 조망하는 안목, 나아가 현실에 참여하여 작은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자로서의 경험 등이 그것이다.

대안학교에서 진행될 법한 교육활동인 프로젝트 활동이 일선 학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안학교의 실험이 참 값진 것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삶에서 출발하여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 배움을 우선에 두는 교육,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시도는 교육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대안적 시도이면서 동시에 미래 교육을 현재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감히 말해 본다.

참고문헌

- 솔밭중학교 학습공동체(2019),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공동체 이야기. 서울: 테크빌교육
- 남미자, 김영미, 김지원, 박은주, 박진아, 이혜정(2019),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가능성 탐색. 경기도: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찬승(2020), '역량중심 교육과정' 추진, 근본적 수정을 촉구한다.
<https://21erick.org/column/5524/>
- 이은상(2019), 세상을 바꾸는 수업, 체인지메이커 교육. 경기도: 푸른칠판
- 양은석(2020), 프로젝트 수업 매뉴얼, 서울: 티스쿨이엔씨
- 엘리엇 워셔, 찰스 모즈카우스키(2014), 이병곤(역), 넘나들며 배우기, 서울: 민들레
- 현병호(2020),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서울: 민들레

주제발표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장과정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토론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정 토론문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장과정

-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미래 대안교육 -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 건 희

1. 대안교육의 이유와 공간

1) 교육의 이유

“학업은 공부하는 일이고,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며,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서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사전에 있는 내용이다.

교육은 공교육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와 지역사회, 마을 등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학업, 공부,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한 지속적인 배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습, 대안교육에 대한 담론의 대부분은 10대의 청소년에게 맞추어져 있다. 10대는 이미 학교 내외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은 학업부담에 놓여 있는데도 학업중단 예방은 오로지 10대의 문제이고 대안교육의 관점 또한 공교육 이외에 또 다른 청소년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학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세대의 주류는 나와 같은 성인들이다. 10대는 대부분 학업에 열심이다. 그것이 인지교육이고 공부를 덜 하더라도 학업에 가장 크게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다. 학업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마을교육이나 마을공동체도 언제나 학교의 부산물로서의 교육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과 고민들 또한 지속해서 사회에 투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육본질에 대해서 해석할만한 능력이 없지만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¹⁾으로 쓰여 있는 내용은 얼추 감을 잡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주적 생활과 민주시민 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이는 민주국가와 민족과 국가를 뛰어 넘어 인류공영(人類共榮)을 위해서 함께 하는 과정”이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와는 많이 다른 교육현장이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내가 이롭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틀에서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하는 싸움 기술을 ‘공정’으로 여긴다. 그 우위에서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며, 개인의 성공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이 모두였다고 주장 하는 정의가 이야기 되는 세상이 되었다. 함께 삶을 살아 왔던 지역사회는 고교졸업 이후 떠나야 하는 곳으로 여기고 지역에 남게 되면 낙오자가 된다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다. 현재의 우리 교육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교육이념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이기성의 기반 아래 입시성적 높여서 경쟁에서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성 좋은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발전과 내가 사는 수도권의 경제복지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그 누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읽고 대안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2) 학교 중심 마을교육의 문제

삶을 살아가고 살아 내야 하는 공간인 ‘지역사회’라는 ‘마을’은 19세가 되면 당연히 떠나야 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공교육 내에서 마을교육,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사업들도 교사의 학습에 하부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사회 또한 광역권이나 도심권을 중심으로 생활이 꾸러지고 교사나 관련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이들 중에 학교는 오후 4시30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이면 퇴근하는 곳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또한 학과 공부 수준에서 교사가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마을 강사라는 이름으로 강사비 주고 연결시켜 활동 하는 일이 아닌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과목과 프로그램이 있다. 상당수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이 현실이 아닌 대상으로서 이론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문다. 최근에 18세 선거권을 가지게 되니 선거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교육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거교육이라니? 투표하는 방식을 교육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투표했는가? 교육이라고 이야기 되는 대부분의 틀이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성적 받는 일이 된다. 그 이외의 활동이나 경험은 모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관계없는 일이고, 실제적인 활동이 아닌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이나 체험 수준에서 머무는 게 교육이라고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과정이고 실천이고 결과이며 현장이고 '활동' 그 자체여야 한다. 혁신교육, 혁신학교,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의 변화와 지역시민들의 그 어떤 교육적인 변화와 공동체성은 어떻게 해석하고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비용이 나오면 현수막 걸린 사업은 돌아가지만 예산이 없어지는 순간 마을교육이라고 이야기 되는 지역 중심의 교육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 될지도 알 수 없다. 교육공동체의 요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그 핵심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사업 몇 번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모두 말해 주지 않는다. 마을 강사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 상당수는 지역에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강사로서 활동을 해 왔던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학교 수업과 연결된 체험활동 등을 교사 보조 역할로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일이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지, 혁신교육,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체험활동이나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는가?

3) 마을 중심 대안교육 공동체의 관점

"지금 학교 교육은 대본이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학생은 배우 역할을 한다(실제 배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애쓰다가 소진된다). 교사는 작가(교육 정책 입안자)가 만들고 프로듀서(정치가와 행정가)가 승인한 아주 엄격히 정해진 대본(교과서)대로 배우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감독이다." '존 카우치'가 쓴 '교실

이 없는 시대가 온다'에서 가져온 글이다. 민들레의 발행인 현병호는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이 높게 평가되지만 무대가 있는 극장의 기능까지 대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실은 연극무대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교실은 학생인 배우들이 관객 역할까지 하는 연극무대다. 교과서라는 대본이 있지만 실제로 대본대로 연기하지는 않는다. 교사도 아이들도 꼭두각시가 아니다. 교사의 이야기는 틈틈이 옆길로 새고, 아이들은 판청도 피우면서 돌발 상황에 애드립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며 극을 이끌어 간다. 막이 내려도 막간에 관객들끼리 펼치는 막간극이 펼쳐진다. 자유로운 교실의 풍경이다.

현병호의 비유에 공감의 크다. 최근 전염병이 창궐한 후 학교와 학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학교의 필요 이유는 연극무대였다.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관계의 공간이다. 대본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요한 존재는 참여하는 학생들로서 그들의 고민과 성찰을 녹여 낼 수 있는 과정에 교사가 함께하는 자리다²⁾. 문제는 공교육에서 연극무대로서의 교실 풍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극무대에서 주체로서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교육은 대안교육 현장에서 이미 널리 진행되고 있다. 대안교육에서 '연극무대'의 연출자로서의 역할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교실이 펼쳐진 대안교육 공간. 무대는 교실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장을 가진다. 교실이 마을 전체가 될 때 삶의 공간으로서 그 중심에 당사자인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청소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을에서는 교과서는 교실안의 연극무대와는 또 다른 삶의 공간에서 실천적인 '교육'과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사회는 실제 활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만이 아닌 참여하는 이웃 모두가 된다. 감독도 배우도 그리고 관객 또한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공간이다. 참고로 학교도 학원도 청소년 기관도 대안학교도 그 어느 곳도 지역의 중심일 수 없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어느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을 넘어서서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역사회 곧 마을이라는 공간 전체에서 청소년과 이웃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삶의 과정이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살아가는 당사자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네 다양한 세대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2) 정건희(2021. 7.22). 사람을 키우는 마을-모두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면서 관계하는 공생적 공간이 될 때. 오마이뉴스 기사. <http://omn.kr/1ujlj>

서로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면서 관계하는 공생적 공간이 지역이 될 때 모든 이들이 꿈꾸는 마을이 사람을 키우며 교육하는 곳이 될 것만 같다.

본고는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교육으로서의 대안 교육의 한 방향으로 실제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달그락’의 활동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달그락달그락에 청소년활동은 교육과 진로, 복지 등이 혼합된 형태의 청소년교육과 활동으로서 미래 교육의 다양한 방향과 관점, 전략에 어느 한 부분을 향한다고 여긴다. 현장의 활동을 안내하고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 하고자 한다.

2. 경험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교육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읽는 대신, 학습하는 것의 맥락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제적 활동,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학습함(learning by doing)을 의미한다(Lang and Evans, 2006)³⁾. 경험학습에서 학습자는 실제적인 사물, 사안, 사람 등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학습에서는 학습자 주도적이고 활동 중심적이 되며 경험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 때 경험은 인간과 자연 및 사회 환경 사이에서 맺어지는 직접적인 활동적 관계를 의미한다(Dewey, 1916). 활동적 관계는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능동적인 측면은 학습자가 외부의 환경, 즉 사물, 사안, 사람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작용을 가하는 과정이며, 수동적인 측면은 작용을 받은 환경이 학습자에게 가하는 반작용의 과정이다. 결국 경험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능동적 측면에서 행위, 활동을 해보는 것(doing)과 수동적 측면에서 정보, 자극을 받아 의미를 파악하는 것(reflection)이 동시에 결합된 역동적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성, 행위와 활동, 오감(五感)의 활성화, 의미 파악과 정리를 위한 사고 작용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경험학습에서 성찰 또는 반성적 사고(reflection)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험학습에서 경험은 단순히 해보는 것, 또는 기계적인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성찰과 결합된 활동을 의미하며, 성찰 자체가 경험의 본질적 요소

3) Lang, Hellmut R. and Evans, David N. (2006). Models, Strategies, and Method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로서 위치를 가진다. 행위나 활동이 경험의 외부적 요소라면, 성찰은 경험의 내부적 요소가 된다.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찰과정이 개입되어야 한다(Dewey, 1916)⁴⁾. 이런 경험학습의 메커니즘은 듀이의 1차적 경험(primary experience)과 2차적 경험(secondary experience)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1차적 경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소재들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2차적 경험은 1차적 경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념이나 판단 등의 내적 경험을 말한다. 올바른 지식 획득 또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1차적 경험을 2차적 경험을 통해서 내면화, 구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험학습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비형식교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Jeffs와 Smith(1999)⁵⁾는 비형식교육이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화에 의해서 이끌어진다고 강조하며 경험을 폭발시키고 동시에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에 비해서 비의도적이고 맥락적인 점을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즉, 형식교육이 고정된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미리 짜인 커리큘럼에 의해 운영되는 데 비해서 비형식교육은 생활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맥락적 학습의 과정이다. 이러한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맥락적 과정인 비형식 학습은 구성주의적 학습과정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 교육 이론가들에 의하면 학습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 의해 구성되며, 지식은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식이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이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고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Duffy & Cunningham, 1996⁶⁾; 최윤진 재인용,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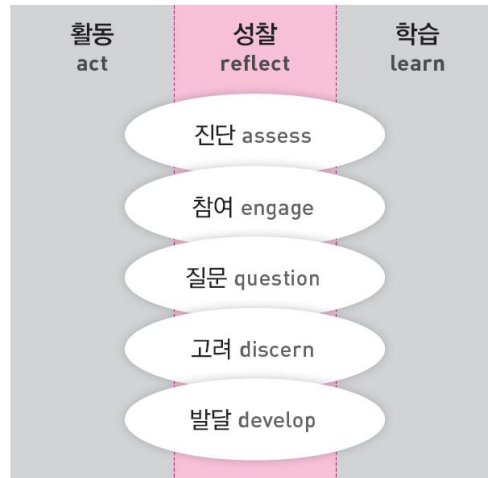
Jeff와 Smith(1999)는 비형식교육은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에 근거해서 학습자와의 담화(conversation)를 통한 상호참여의 과정이라고

4)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1991).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5) Jeffs, T., & Smith, M. K. (1999). *Informal Education - conversation, democracy and learning*. Education Now Books in association with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London.

6) Duffy, T. M., & Cunningham, D. J. (1996). Constru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Instruction. In D.H. Jonassen(ed)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NewYork: Simon & Schuster Macmillan.

본다. 그들은 교육자 입장에서 비형식교육의 과정은 교육자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세워 발전(develop)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비형식교육은 활동(action)하고 그에 대한 성찰(reflect)을 통해서 학습(learn)하게 되는 주요 국면들을 포함한다고 보며 비형식교육의 과정을 다음의 [그림1]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1] 비형식교육의 과정
출처. Jeffs & Smith(1999). p. 66

즉, 비형식적 교육과정은 청소년활동 과정과 연결 지어 보면 청소년과 대화를 통한 참여, 지도자 또한 대응방식을 세워 함께 발전하며, 청소년 입장에서는 진로, 사회참여 등 다양한 활동 그 자체에서 성찰과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과정 중심의 비형식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으로 부터 시작함으로써 실제 삶과 연계된 실용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및 성찰의 과정이 중심이 됨으로써 주입식 수동적 형식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이 개방된 소통의 장이 됨으로써 교육자와 학습자 상호 간의 다양한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최윤진, 2011⁷⁾ 재인용). 경험, 체험, 성찰, 학습의 관점에서 비형식교육은 미래 교육으로서의 주요한 교육 관점일 수 있다.

7) 최윤진(2011). 청소년 시민참여와 비형식교육, 시민청소년학연구, 2(1), 31-59.

3. 달그락달그락⁸⁾의 교육, 활동 사례

1) 활동배경 및 각 조직의 역할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의 자치공간이며 지역사회 플랫폼으로서 NG(P)O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 중심으로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희망하며 운영된다.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달그락달그락’에서의 안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있는데, 사람들의 ‘정’이 흐르는 관계가 살아날 때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이웃 등 지역사회의 관계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 청소년참여가 일어나는 공간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곧 마을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활동이며 교육으로서 변화의 주체이면서 변화의 당사자가 된다. 마을에서의 교육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자체에 집중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자치기구를 구성하는데 이는 사회참여, 경제, 역사, 작가단, 인문학 등 다양한 활동을 주체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회를 선거로 선출하고 1년 단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자치활동 가운데 후반기 청소년 참여 포럼을 통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한다.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미디어 위원회 등 다섯 개의 기성세대로 조직된 위원회와 두 개의 자원활동가, 그리고 후원자(달그락 지기)가 조직되어 있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웃들이 연결되어 지원하고 있다. [그림2]와 같다.

8) 활동소개 동영상: <https://youtu.be/E5T9OWb3xVs>



출처. 황여정(2017); 정건희(2017) 원고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2] 달그락달그락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구성

자원봉사 그룹으로 자원활동가 꿈청지기도 조직되어 활동 하는데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과 기성세대들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고 수료한 분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매주 한 두 차례씩 달그락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달링(달그락 멘토링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일일 찻집을 열어 자원 활동가들이 손수 수제청과 차와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자치활동 하는 달그락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청년들 중심의 자원활동가들의 조직이 증가하는데 추세다.

상근 활동가들(연구원)의 주요한 일은 ‘달그락달그락’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조직하고 소통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와 지도자 등의 학생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크다. 청소년을 돕는 지역의 다양한 이웃들을 연대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해석하며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과정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지원하는 기성세대들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비청소년과 활동가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스럽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사회의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실재화 된다. 미래교육은 교실을 넘어 마을 전체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삶으로서 나타나며 실천적 주체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2) 달그락 청소년 주요활동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청소년자치연구소 내부보고서,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정보완).

첫째, 경제활동으로 경제관념 체득과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도모,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연대활동과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표로 두었다. 청소년들은 제품 선정 및 제작, 시장조사, 홍보, 판매, 회계 등의 경제활동을 계획 및 운영을 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하였다. 재화와 노력, 시간을 유효하게 쓰려는 경제관념을 습득하였고 최종 평가에 따르면 실제 마케팅과 경영의 역할을 알 수 있어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팀 구성 및 활동 계획, 추진뿐만 아니라 프리마켓 TF를 통해 청소년 프리마켓 장소 섭외와 홍보, 이벤트와 총괄 진행을 맡으며 청소년 프리마켓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기여활동은 플리마켓의 수익금 중 10%이상을 기부금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 주도로 지역 내 노인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와 논의하여 기여활동을 기획·진행하였다. 청소년 플리마켓 운영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연계 지원을 했고, 달그락 내 꿈청지기 자원활동가의 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상가들이 함께 청소년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동시에 청소년 프리마켓에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와 감사 의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둘째, 사회참여활동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사회참여 네트워크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면서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의회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자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강화,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참여를 하도록 지원하였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달그락참여포럼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지자체에 제안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가 통과되었다. ‘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제 조례가 통과되어 전국최초의 조례가 탄생하게 된다. 과정 가운데 청소년의회아카데미, 청소년기자학교, 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도왔다. 지속적인 조직 활동으로는 청소년 기자단이 매주 새전북신문의 한 면을 달그락 지면으로 기사를 써왔다. 청소년기자아카데미를 시작으로 3개 팀(문화, 교육, 정치

사회) 25명의 청소년들이 2기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을 통해 활동이 진행되었다.

셋째, 청소년 역사, 문화 활동은 지역의 근대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역사와 문화 관련하여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을 형성하고, 지역에 참여하면서 주체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역사 활동으로는 독도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체험활동 및 글쓰기, 일제강점기 지역의 항쟁 운동에 대한 청소년 강사의 강의와 역사지 탐방, 지역의 근대역사지 개발방식에 대한 역사토론회를 했다. 문화 활동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소셜미디어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미디어 강의, 어르신의 삶을 글로 작성하는 책 작업,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진 및 영상 활동에 대한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별로 청소년자치기구 활동과 함께 매년 10월 내외가 되면 청소년들이 TF를 구성 실제 자신들이 경험하고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2017년 군산시의 아동청소년행복도시 주요성과 및 비전(군산시, 2017)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부분에 어린이시정 홈페이지 구축,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제안은 지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달그락 청소년들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결과다.

달그락달그락 청소년들이 지원한 활동 중 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인 ‘청소년지역여행기’와 지방 선거를 맞아 청소년들이 TF를 조직 포럼을 구성하여 정책제안 활동을 준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지역여행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의 약어로 달그락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포럼’의 제목이다. 7~8개월여 진행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참여 포럼’을 기획하여 청소년들 중심의 포럼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이 되기 위한 세부 영역으로 나누는데, 2016년까지는 청소년들이 경제, 건강, 안전, 참여 등으로 나누어 그룹별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당일 청소년참여포럼에서 최종 정리해서 발표하게 된다.

이후 발표한 정책 자료들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참여 포럼에서 최종 정리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게 되고 관계자들은 그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지역 시의원,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여건이 될 때에는 지역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내용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토론하여 정리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들을 모아서 군산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하면 시의 각 관련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확인하고 청소년자치연구소로 반영되는 부분과 불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보내 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회 조례와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 어린이청소년정책 창안대회, 진로체험 지원 등의 정책들을 시에서 수용해서 운영 지원하게 되었다.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군 산 시

수신: 청소년자치연구소 (경유)

제목: **청소년 참여포럼(15.12.11)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릴**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열성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5. 12. 11.에 ‘청소년이 제안하는 지역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청소년 참여포럼』의 정책제안사항과 관련
↳ 2016년도 우리시 관련정책에 일부 반영하여 실행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발전적인 정책제안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사항 적용 분야】	
✓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어린이·청소년 정책창안대회
✓ 불량식품 유통방지	✓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 진로체험 지원	✓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붙임 분야별 2016년 업무계획 1부, 끝.

[그림3] 청소년참여포럼 워크북 및 군산시의 청소년참여포럼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림공문

2017년에는 청소년들과 활동가들이 논의하여 정책 제안 영역을 지역상황에 맞추어 청소년 인권참여, 문화, 교육진로, 복지안전, 경제 등 다섯 개 영역으로 다시 배열하고 청소년들 중심의 팀을 구성했다⁹⁾. 팀 구성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우선 선정되는데 가급적 청소년자치기구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관련 영역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프리마켓 등 경제, 진로활동을 꾸준히 해 온 청소년들은 경제영역이나 교육진로 영역에서 정책 제안 활동 준비를 하게 된다.

영역별 팀이 구성되면 팀 내 분과장이 선출되고 분과장 중심으로 정책 제안한

9) 2018년 달그락 청소년참여활동은 지방선거와 연결되어서 구체화 된다.

내용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때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해서 제안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학습과 함께 자료를 찾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정책)분과일 경우 청소년문화와 관련한 전공서적을 찾아 문화, 청소년문화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의 실제 문화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찾아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청소년축제, 동아리활동 등 관련 활동의 예산을 분석하고 지역의 공간 등을 찾아보게 된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묻고 간단히 설문형태의 실태조사도 진행한 이후 원고로 작업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정책 제안 사항을 구조화 시켜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해서 그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희망 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 등의 분과를 영역화 하고 토론회와 포럼을 통하여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사업), 공간,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구조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참여포럼-청소년지역여행기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향상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영역별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 팀별 활동 가운데 학습과 현장검토,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맞아 ‘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80여명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과 참여, 문화, 경제, 복지와 안전, 교육진로 등 다섯 개 분과로 조직되었고 각 분과별 팀장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졌다. 특히 다섯 차례의 포럼은 각 분과별 주제에 맞추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계자 또는 학자, 도의원, 시의원 등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친화정책 5개 영역 118개를 만들게 되었다. 이 정책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 군산지역 청소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영역 우선순위 45대 정책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후보들의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에 출마한 모든 시장후보들께 관련 정책을 보내 드리고 공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만나서 제안하였다. 청소년친화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발표 자료와 설문 통계자료 등은 모두 모아서 정책제안집으로 출간

하였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친화정책 제안집을 출간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그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관련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민선7기로 당선된 시장은 관련 정책의 상당수를 반영해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달그락에서 제안한 청소년정책들의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한 중간 점검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이 이루어진 바 최근에는 청소년건강을 위한 달그락 청소년TF가 구축되어 시의원과 '청소년외로움 방지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3) 코로나19 이후 온택트(On-tact) 활동

(1) DYBS 청소년마을방송국

달그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DYBS 청소년방송국을 개국했는데, 페이스북¹⁰⁾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방송하고 있다. 달그락의 미디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달그락마을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DYBS는 'Dalgrak Youth Broadcasting Station'의 약자로 '달그락 청소년 마을 방송국¹¹⁾'을 뜻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알리고, 청소년 주도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방송을 한다. 2017년 6월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시범방송을 시작한지 2년여가 지나고 지난 2019년에 정식으로 개국¹²⁾하게 되었다.

초기 DYBS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자치기구로서 PD, 앵커, 작가, 기술엔지니어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2017년 6월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때 청소년 덕질 파헤치기와 같은 예능 분야, 고3의 청춘노트 알바와 입시와 같은 다큐 분야, ASPECT 청소년기자단이 연계한 뉴스 방송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청소년방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세월호 4.16 기억을 위한 특집방송과 매 년 특집 공개 방송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1년여 시범 방송 진행 중에 조금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안내하기 위해 달그락에서 활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자치기구들이 방

10) 페이스북 방송 주소: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videos/?ref=page_internal

11) DYBS 소개영상: <https://youtu.be/0epKVy4W69A>

12) 개국방송자료 및 영상: <https://blog.daum.net/babogh/13747397>

송에 참여하게 된다. DYBS는 자치기구가 아닌 달그락의 종합적인 방송이 되고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이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활동이 커지고 자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그락 내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달그락 내에 독자적인 방송설비가 구축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소셜방송은 크게 확대 된다. 방송내용도 영화 리뷰,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의 이야기, 고품격 문학방송 청소년 작가단의 책 추천, 여행과 음악이야기, 청소년 진로 고민상담소,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례, 청소년 상상셀러 아이템 리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과 관련 전문가들도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달그락 마을방송도 탄생하게 된다. 청소년들 삶을 자신이 이야기 하고 나누고자 노력했다. 청소년은 가르침 받고,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안내하고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와 역사 문화도 그들 나름의 시각으로 사회에 안내하고자 했다.

(2) 코로나19 이후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활동이 온택트(On tact)로 전환 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자치기구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소셜미디어 등으로 안내했었는데 대면이 어려워져 소규모 집단과 연결에 집중했다. 매년 진행한 6회째 맞는 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인 - 코멘트 part1¹³⁾은 청소년 온택트(On tact) 행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1월, 12월에 두 달여에 걸쳐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진행한 포럼이다. 유튜브, 줌, 페이스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동원했고 소셜 방송 중심으로 각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초기 청소년 중심의 포럼추진위가 구성되었고, 각 분과별(교육, 문화 등)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인터뷰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해서 발제문까지 쓰고 준비를 마쳤다. 관련 전문가들과 담당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자문과 함께 요청하는 내용을 지원했다.

포럼 방식은 전체 참여자들이 줌으로 모여서 두 달여간 각 분야별로 나뉘어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파트별로 기초발제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을 묶어서 각 분과별 그룹핑해서 토론하게 한다. 그 토론이 정리되면 전체가 모여서 발제한 원고를 기반으로 토론하여 정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발표하면서 서로 간 이야기를 나누고

13) 행사 녹화본: <https://youtu.be/aOYccABi8-8>

제안사항을 취합하게 된다. 줌 (zoom)안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하게 되는데 이곳에 오지 않는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채널로 동시에 접속해서 제안이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줌(zoom)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마치는 시간까지 각 분과별 토론과 제안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담당 선생님들이 촉진하는 역할을 했는데 온라인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나갔다. 달청포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이벤트적 요소는 상당히 없어졌다. 이전에도 달그락에서는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서 청소년주도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준비 안 된 토론회는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100인, 200인 토론회 열어서 전지에 제안문 적게 하고 모아서 발표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참여자들의 생각을 모아내는데 유용하나 여기에 단점이 있다. 매번 비슷한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지역사회 등 관련 내용에 공부도 고민도 없다가 일반적인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는 수준에서 당연히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고 내용은 매년 반복했던 민원 수준의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미리 참여 청소년들이 관련 주제에 따라 공부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의견도 제안 받고,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해외 사례나 내용들 살펴야 하고, 지역 정책과 예산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참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를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활동가와 교사, 지도자들의 일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선 위치에서 제안은 자연스럽다. 정책 참여의 기본이다. 이벤트가 사라졌다는 것은 포럼의 내용도 모르고 참여하는 데에만 의의를 둔 청소년들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과정에 참여하면서 준비 하지 않고 줌(zoom)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다. 형식적 동원의 대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관'이다.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열어 놓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 장으로 만들어 진다. 준비가 된 청소년들은 상당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 줌에 들어와서도 생각이 많아져서 갑자기 자신의 제안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달그락 선배들이 나서서 함께 촉진 하는 역할도 했다.

둘째, 많은 인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적에 집중하는 행사가 아닌 성과로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의미가 있다. 지난 5회까지 진행한 오프라인에서의 '달청포'는 100여 명 내외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기획과정에 추진위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온라인으로 기획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온라인의 상황에서는 참여하는 청소년수가 낮아졌다. 다만 동영상의 녹화되어 그대로 공유되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과급력 또한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높아진다. 당일 참여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수는 오히려 준비 기간이 길고 소그룹 중심의 논의와 비대면을 통한 회의와 학습, 연구 등의 시간이 길어져서인지 줄어 들었다. 이는 클릭수와 관계없는 성과로서 나타난다.

셋째, 청소년들과 담당 선생님들의 몰입도가 의외로 높는데 이는 줌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방송에 기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추진위에서 함께 준비한 청소년들의 집중도와 참여 수준은 예상 외로 높았다. 포럼에 참여한 청소년들 또한 줌에서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체 모임, 개별 분과 토론, 다시 전체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토론했다. 얼굴이 공유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유심히 들어야만 따라 갈 수 있는 구조다. 그 가운데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적절한 촉진 역할이 중요했다. 유튜브, 줌, 페이스북, 미트 등 관련 도구들의 기본적인 것들만 활용해도 활동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 전부터 소셜미디어 방송 도구를 갖추고 꾸준히 방송을 진행해 왔고 선생님들이 초기 진행할 때와 다르게 나름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배양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줌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연동하고 방송으로 내 보내면서 서로 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줌의 구성과 각 분과별 토론 또한 선생님들이 청소년들 안내를 열심히 했다. 관련한 전문 기술이 아니어도 활동에 맞추어 준비하면 재미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몰입과 변화 준비 과정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더욱 보강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활동과 교육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과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 교육과 관계, 공동체 등 수 많은 기재에서 활용의 폭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에 단순한 지식 안내 수준의 동영상이 아닌 그 순간에 관계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요소를 더욱 많이 고려해서 이전에 활동이나 교육의 본질가치나 이상, 질적 수준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새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3)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 온택트 달달파티¹⁴⁾

2020년 6번째 달달파티는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맞아서 당연함이란 없다는 것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그들이 변화 시킨 우리 사회를 축하하고 서로 간 축복하는 자리인 달달파티. 팬데믹을 맞아서 이전과 다른 전경이 펼쳐졌다. 매년 청소년임원과 위원, 후원자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 해는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했다. 1년 여간 청소년의 개인적 변화와 청소년들이 변화시킨 지역사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안내하고 서로 축하하는 자리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 통해서 1, 2부로 나뉘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변화와 달그락의 활동에 대한 안내와 축하가 이어졌다. 3부에는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고 따로 참여 신청한 청소년, 후원자, 위원, 이사들이 줌으로 모여서 노래와 시낭송, 노래, 춤과 한해에 감사한 일을 나누며 대화 하고 서로 간 축복했다.

달그락의 청소년대표인 권예은 회장이 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자신이 달그락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던 것 것처럼 대표에 출마하면서 후배들의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 보겠다고 다짐 했지만 태풍을 만났다는 표현을 했다. 권회장의 태풍은 코로나19였고, 우여곡절 끝에 선거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태풍보다도 더 큰 ‘벼락’을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 대표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 것을 벼락이라는 표현을 했다. 자신은 강낭콩이었는데 자라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 성장한 모습을 돌아보았고, 그 내용을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이라는 책에 담았다. 예은 회장의 아버지는 사회적기업인 투어엔미디어의 권민식 대표다. 길위의청년학교 1기 멤버였고 현재는 달그락에서 미디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비영리 기관에 깊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엄마! 꿈칭지기는 어떤 활동을 해요?”

기자단인 진영이가 엄마에게 질문한다.

“내 마음의 안식처란다. 과정이 너무 좋고 서로 간 위해주고 참여하고 나면 봉사했다는 느낌이 오거든”

기자단에서 활동하는 진영은 어머니인 은희 선생님이 안내해서 달그락활동에

14) 관련 영상, 자료, 사진 등: <https://blog.daum.net/babogh/13747574?category=4423>

참여했다. 달그락 내의 꿈청지기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은희 선생님에게 딸인 진영이 행사 중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안식처’라는 표현을 한 것. 모녀가 오늘 달달파티에서 춤도 추었고 대화하는 영상이 그대로 안내됐다. 두 분 춤을 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낸다.

청소년들이 조금은 어설프지만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주제로 합창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방송했고, 브이로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 방콕 하는 모습도 보였고, 달그락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회의하는 실제 모습들이 적나라한데도 그들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고 참여수준 높음에 또 다른 감사함을 전해 받는다.

해빈 청소년은 방송활동을 주로 하는 ‘새로고침 F5’ 활동하면서 키워드를 총선, 자치, 마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자신과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의 변화를 봤다고 했다. 누구나가 그렇지만 달그락 활동하면서 ‘자신감과 성취’를 크게 가진 한해라고 했다. 자신감과 성취감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점으로 읽힌다.

2부까지는 오픈해서 청소년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행사를 기획 진행했고 3부는 따로 신청한 50여명의 시민들이 줌으로 다시 만나서 이번 한해에 우리가 당면했던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 나누었고, 음료수로 건배사도 함께 하면서 이번 한해를 서로 감사했다. 팬데믹이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기관 운영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성장과 사람됨을 보게 했다.

연구소와 달그락의 존재 이유는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 후원자와 위원, 이사 등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로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 그 일을 이루어 가는 활동을 청소년이 한다. 활동은 교육이나 복지서비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실천적인 일이고 실제이면 진짜 활동이고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기 전에 준비해 보며 학습하고 체험하는 수준의 대상으로서 청소년, 학생을 대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나와 같이 실제 행할 수 있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일이다. 교육은 자연스럽다. 청소년은 변화의 주체로서 자기 삶의 진로의 과정에서 민주시민, 지구시민 즉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교육은 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공간에서나 죽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4. 제언

본고는 공교육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교육으로서의 한 사례로서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달그락’의 활동 사례를 설명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현재 공교육이 교육의 철학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로서 혁신교육, 혁신학교,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청소년 당사자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그 어떤 교육적인 변화와 공동체성에 대한 성과의 부족과 변화에 대한 해석은 요원한 과제로 남는다.

마을 중심 대안교육 공동체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장을 가진다. 교실이 마을 전체가 될 때 삶의 공간으로서 그 중심에 당사자인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청소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마을에서는 교과서는 교실 안의 연극무대와는 또 다른 삶의 공간에서 실천적인 ‘교육’과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철학과 방향은 경험주의와 비형식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의 경험은 능동성, 행위와 활동, 오감(五感)의 활성화, 의미 파악과 정리를 위한 사고 작용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이때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찰과정이 개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학습의 메커니즘과 연관하여 비형식교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험, 체험, 성찰, 학습의 관점에서 비형식교육은 미래 교육으로서의 주요한 교육 관점일 수 있다.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이웃 등 지역사회의 관계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달그락 청소년 주요활동으로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청소년 역사, 문화 활동 등의 영역으로의 활동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활동은 ‘사회참여’와 ‘진로’가 요체로서의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자치조직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이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등의 비청소년 조직이 있다. 활동 후반기에 지자체 정책에 관여하고 제안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코로나19 이후 온택트(Ontact) 활동으로 이미 구축된 DYBS 청소년마을방송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

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차이 있는데 이벤트적 요소가 상당히 없어졌고, 성과로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의미가 있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이 마을 중심의 청소년활동으로서 어떠한 관점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삶의 과정 그 자체로서 경험이어야 하고 성찰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은 세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배움과 성장이 있다면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 또한 지속적이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성찰 없는 형식의 틀에 얽매어 있고 입시와 직업을 수단화 하고 있는데 법적 교육이념의 기준 또한 되돌아보아야 한다. 청소년이 삶을 살고 있는 지역사회 또한 19세가 되면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닌 삶으로서 살아 내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삶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들 대부분이 입시가 목적으로 이론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그 이외의 활동과 체험은 모두가 부수적인 입시의 수단이 되는 그릇된 관점을 성찰해야 한다. ‘교육’은 과정이고 실천이고 결과이며 현장이고 ‘활동’ 그 자체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의 관점은 경험과 맥락과 성찰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경험학습과 비형식교육 등 관련 이론과 철학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읽는 대신, 학습하는 것의 맥락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제적 활동,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학습함(learning by doing)을 뜻하는데, 이 때 경험은 인간과 자연 및 사회 환경 사이에서 맺어지는 직접적인 활동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경험은 단순히 해보는 것, 또는 기계적인 행위나 활동이 아니고 성찰과 결합된 활동을 의미하며, 성찰 자체가 경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위치를 가진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화에 의해서 이끌어진다고 강조하며 경험을 폭발시키고 동시에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비형식 교육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비의도적이고 맥락적인 점을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비형식교육은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에 근거해서 학습자와의 담화(conversation)를 통한 상호참여의 과정이라고 본다. 그들은 교육자 입장에서 비형식교육의 과정은 교육자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세워 발전(develop)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비형식교육은 활동(action)하고 그에 대한

성찰(reflect)을 통해서 학습(learn)하게 되는 주요 국면들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은 청소년의 삶에 기반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진로’를 기반으로 청소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자치연구소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을 청소년 중심의 NGO/NPO로서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공간 자체를 청소년 참여 중심으로 이웃 간의 ‘관계력’을 만들고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지역사회가 10대 이후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속가능하게 살만한 공간이 되도록 활동과 교육을 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모으고 조직화 하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에 대한 가치 등의 비전을 나누고 연대하며 조직화 하여 시민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는 삶의 교육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동하기 마련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해석은 청소년들이 해야 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지역을 일구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해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와 그들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서의 청소년교육과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지원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수 질 수 있도록 연대하는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지지하고 고민을 나누며 실천하는 비청소년인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소 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진로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교육자치연구회 등 다섯 개의 위원회와 꿈청지기 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자원활동가 그룹이 실제 지원활동을 하고 자문과 후원자 그룹이 따로 운영을 돕고 있다. 위원회와 자원활동가 그룹은 모두 월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고 토론한다.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고 활동인 셈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시민들의 연대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활동가(연구원)들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계획을 기획 진행한다. 달그락달그락은 플랫폼 공간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들을 기획하는데, 연초 개별 청소년자치기구가 조직화 되고 청소년들이 각각의 1년 사업기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표자회의가

조직된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년 연합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후반기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개별 청소년 자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청소년 개인의 활동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가 조금 더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신들이 관심 있는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진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는데 그 활동과 연결된 영역의 학습과 토론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개발하여 발표한다. 그 발표 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공무원, 시, 도의원 등과 함께 토론 논의하여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전 과정을 실무를 담당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도록 도우며 기성세대 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한다.

여섯째,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장지원과 활동, 교육은 비대면, 온택트 등 다양한 관계론적 방법을 찾아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과 교육 현상이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더욱 깊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달그락에서는 이미 DYBS 청소년마을방송국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본 온택트 활동이 더욱 강화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이벤트적 요소가 이전보다도 더 많이 없어지고, 청소년주도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많은 인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적에 집중하는 행사가 아닌 성과로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규모 모임이 많아졌고 어디에서나 여건만 맞으면 회의와 모임이 가능해 지면서 비대면 활동으로서의 깊이 있는 활동도 지속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몰입과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더욱 보강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활동과 교육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자치적인 조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조직화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2021년 현재 15개의 자치기구 150여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조직이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회의로서 매년 선거로 선출이 된다.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도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참여의 주체로서 자치의

주체로서 활동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조직화다. 학교에서 학급으로 조직되는 구성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발현된다. 자발적이어야 하고, 1년 계획부터 조직의 회칙으로 통하는 규칙도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다. 그들이 정하고 설정한 규정과 계획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체로서 조직이 꾸려지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철저히 자치적이어야 하며 담당 활동가(연구원)는 그들을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자치조직을 만들지 않을 때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대상이 되고 만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만의 민주적 의사수렴 구조를 가진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들 양성이 필요하고 그들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참여 수준 높은 자치적인 활동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지역사회 변화는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삶의 경험과 성찰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진로의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간의 영역은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이동해야 하고, 교사의 권한은 청소년들과 나누어 가급적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도록 안내하고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교과서는 이론을 넘어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민 등이 모두 교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연결된 수많은 관계의 수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학생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관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미래교육은 AI를 비롯한 수많은 첨단 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이전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네 삶에서 교육을 하고 받는 서로간의 주체적인 역할로서 지속가능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일이다. 내가 보는 미래의 대안교육의 관점이다.

참고문헌

- 정건희(2016).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청소년현장, 이시대의 방향과 관점-다시 청소년운동으로 연합 포럼 자료집. 2016년11월26일 개최. 군산: (사)들꽃청소년, 한국 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총사업연합회, 군산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자치연구소
- 정건희(2020). 청소년활동론. 어가
- 청소년자치연구소(2015, 16, 17, 18, 1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내부보고서.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 황여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자치이야기 블로그: <https://blog.daum.net/babogh>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1991).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Duffy, T. M., & Cunningham, D. J. (1996). Constructivism: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Instruction. In D.H. Jonassen(ed)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NewYork: Simon & Schuster Macmillan.
- Jeffs, T., & Smith, M. K. (1999). *Informal Education - conversation, democracy and learning*. Education Now Books in association with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London.
- Lang, Hellmut R. and Evans, David N. (2006). *Models, Strategies, and Method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정¹⁾ 토론문

순천향대 교수 김 민

I. 토론을 열며

오늘 토론을 맡은 필자는 발제자인 정건희 박사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팀을 꾸려 아태지역YMCA를 함께 방문한 적도 있고, 정 박사가 재직하던 군산시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 컨설팅 차 방문하여 인사한 적도 있으니 햇수로만 열추 20년가량 이어지는 인연 같습니다. 그간 제가 보아 왔던 정건희 박사는 실천의 장면에서 올곧게 자신의 의지를 펼치되 타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이론 장면에서도 청소년의 자치와 참여를 화두로 삼아 힘주어 한 우물을 파는 결 끝은 사람입니다.

토론의 문을 열면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인연과 함께 발제자에 대한 평을 모두(冒頭)에 소개하는 이유는, 30쪽이 되지 않는 그의 발제문이 6년간에 걸친 그의 ‘참여 인생’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입니다. 그의 참여 인생의 주요 무대이자 오늘의 핵심 사례인 달그락달그락(이하 달달)은 다름 아닌 그의 철학과 교육관이 집약된 공간이자, 청소년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발제자는 그의 발제문 앞에 “교육은 어디에서 언제 하는 것일까?”란 질문을 부제로 삼아 글을 열었을 테고, 이어 “경험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글의 4장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런 글들이 앞에서 언급되었는지 발제문을 꼼꼼하게 읽은 이라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토론자는 발제자의 활동 사례 소개와 그의 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의 글에 대한 보완적 기술로 토론자로서의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질문도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만 주제들도 담고자 합니다.

1) 당초 발제문의 제목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성장과정”인데, 아마도 발제자가 언급하려는 의도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정”인 것으로 보여 토론문에서 제목을 토론자 임의로 변경하였음.

II. 공교육과 대안교육: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과 대안교육과의 협력

우리 사회가 급격한 서구화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압축적으로 성장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압축성장이 갖는 진통의 역사가 그러하듯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또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서구 근대성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서구 근대성에 내재된 한계를 초극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좀 더 넓고 유연한 시각에서 살피면서 그간 잃어버린 우리의 유산으로부터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공동체에 대한 염원과 열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구 교육체제에 길들여져 그 한계를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교육의 대안으로, 그동안 서구 근대성에 의해 상실된 - 혹은 약화된 - 교육공동체를 향한 염원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린 흔히 아프리카 속담이라면서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역사 면면에는 그와 다르지 않은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찰 자체가 최근 철학,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유토피아적 열망으로 뿔어져 나온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오래전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던 시절,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였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학교를 독점하기 전 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이었고, 이들 공간이 성장세대에 대한 배움의 터전으로 온전히 기능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의 단면은 한국 사회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세계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구한 서울대 유성상 교수의 글과 한국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천착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양병찬, 2018; 유성상, 2018). 마을교육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대안으로 언급하는 이상의 글들에서 참고해 보건대, 마을교육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우선 주목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공교육의 공동체성 복원’입니다. 즉, 학교교육 정책에 있어 근대성에 의해 상실된 공동체성을 복원해야 진순한 의미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의 과정이자 자기와 타인의 이해과정(교 教學相長)입니다. 교육을 주 기능으로 삼는 학교는 사회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 스스로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마을교

육공동체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끊임없이 오늘날 학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우리 모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는 결국 관계적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학교를 제외하고 비형식교육적 측면만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제자의 사례발표에서 간과되어진 **공교육과의 관계정립과 전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전략과 실태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역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프랑스 우선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상당기간 - 2014년부터 연구를 했으니 어느덧 7년째 됩니다 - 연구를 했는데 그곳 역시 제1차 교육안전망으로서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²⁾

III. 청소년의 자치·참여 진작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인력의 양성

청소년의 자치 참여 공간으로서 ‘달달’이 그간 수행해온 성과는 사실 작지 않습니다. 발제자의 글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청소년의 주도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자치와 참여의 성과는 뚜렷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반 중 하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 형성과 지원인력의 유무**입니다.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 1급 전문가로서 그간 제3세계 수원국가의 청소년센터 건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발협력 참여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탄 팀푸에 건립예정인 청소년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3세계 청소년센터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무엇보다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이런 인식전환을 비롯하여 청소년주도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 확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취약하고 전문성을 지닌 지원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해 달달이 그간 해온 지**

2) 이에 대해서는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프랑스의 청소년 성장지원정책사례(163~188쪽)와 [김민·이영란(2020).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115~140.]을 참조하십시오.

난한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저는, 그래서 이 글만 갖고는 정건희 박사의 그동안의 수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치와 참여를 위한 제대로 된 인력의 발굴과 역량개발 과정이 아직껏 천착되지 못한 청소년계의 실정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지원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것인가도 역시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을 끝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민·이영란(2020).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115-140.
- 양병찬(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2018 마을교육공동체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사)마을교육공동체함께배움.
- 유성상(2018). 제3세계 마을교육공동체: 지역학습센터 기능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2018 마을교육공동체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사)마을교육공동체함께배움.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

인 쇄 2021년 8월 20일

발 행 2021년 8월 20일

발 행 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 쇄 처 삼일기획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 의 교육부(044-203-65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153)

• 이 책의 내용은 www.gotoschool.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